

 전기 보조금 100만원 깎고 대상 2배 늘린다 **6**

 홈플러스 사실상 편의점 사업 접는다 **14**

코픽스 신뢰 '흔들' 주담대 믿을 만한가

〈금리〉

8개 은행 금리 기초정보로 산정 은행연 '예금 가입 중단' 씨티와 정보제공 유지 논의 전혀 없어 "씨티 점유율 낮아 금리 영향 미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 관리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코픽스는 8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금리 기초정보를 받아 산정된다. 코픽스 산출에 참고하는 수신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다.

하지만 8개 은행 중 한국씨티은행의 수신상품 폐지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코픽스 산정용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은행단 재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씨티은행은 다음 달 15일부터 수시입출금예금, 적금 및 정기예금(원화 및 외화)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다음 달부터 해당 상품의 신규 취급액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정보 제공 은행단이 실제로 취급한 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 코픽스인데 그 구성원이 한 곳 빠지는 셈이 된다.

한 달간 신규로 취급한 상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 신규 취급액 코픽스이고, 보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 잔액 기준 코픽스다.

한국씨티은행이 다음 달부터 수신상품을 더는 취급하지 않으면 코픽스 산정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도 그만큼 없다는 의

코픽스 산정 은행단과 수신상품

산출대상 수신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정보제공은행

시중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특수은행 :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미다.

은행연합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규 취급액 코픽스 계산식을 보면 각 은행의 월중 신규 취급액을 모수로 삼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수신상품 폐지로 신규 취급액 모수가 작아진다면 결과값, 즉 코픽스는 상승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씨티은행이 다음 달에도 정보 제공 은행단에 계속 포함돼 있으면 당장 3월에 발표되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금리 상승 영향을 받은 값이 산출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관계자는 "코픽스 정보제공 은행에서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보제공 은행단 중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점유율은 8위에 그치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수신상품 취급을 중단하면 수신상품에서 금리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씨티은행도 제공할 정보가 없을 것"이라며 "코픽스 정보제공 은행에 한국씨티은행을 계속 포함해야 할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한, 사우디 최대 주·단조 공장 건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18일(현지시간) 사우디 킹살만 해양산업단지에 9억4000만 달러(약 1조1209억 원) 규모의 주조-단조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리야드/연합뉴스

'114조' 몰린 LG엔솔 IPO 새 역사... 1주도 못 받을 수도

LG에너지솔루션이 기업공개(IPO) 일 반 청약에서 114조 원대 청약증거금을 끌어 모으며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표주관사인 KB증권 등 증권사 7곳에 모인 청약 증거금은 114조1066억 원으로, 청약 건수는 442만4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LG에너지솔루션에 몰린 청약 증거금은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SK IET(81조 원)보다 30조 원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KB증권에만 50조 원 이상의 증거금이 몰렸다.

투자자들이 균등 방식으로 배정받는 물량은 최대 1~2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균등 배정 물량은 대신증권이 1.75주로

가장 많다. 나머지 증권사의 배정 물량은 △하이투자증권 1.68주 △신영증권 1.58주 △신한금융투자 1.38주 △KB증권 1.18주 △하나금융투자 1.12주 △미래에셋증권 0.27주 순이다.

LG엔솔은 27일 상장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연준 공격적 긴축에... 글로벌 금융시장 '비명'

미국채 2년물, 2년 만에 1% 돌파 유가 7년래 최고치... 코스피 약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다. 그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휘청였다. 연준발(發) 국제 금리 쇼크, 이른바 '긴축발작'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 국제 2년물 금리는 1.05%까지 치솟았다.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만에 1% 돌파다. 10년물 국제 금리도 1.87%까지 올라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 1.3%에 머물던 해당 금리는 올해 들어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다. 연준이 최소 세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주식 매도세도 이어졌다. 미 주요 지수인 다우와 S&P500은 이날 각각 1.51%, 1.84% 내렸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6% 빠지며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나스닥은 올 들어서만 5.93% 급락했다.

채권과 증시의 '긴축발작'을 글로벌 큰

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헤지펀드들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베팅하며 채권·주식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전했다. 큰손들이 기술주를 집중 매도 하면서 그 여파가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원유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공급 부족, 지정학적 갈등 우려에 가격이나 고공행진 중인 유가는 큰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명까지 겹쳐 7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 ▶관련기사 4면, 4면에 계속

김서영 기자 0jung2@



올 설엔 서로의 응원이 되어주세요

정관장



설맞이 사은행사
2022. 01. 07 - 02. 03

- ① 선물용제품 10~20% 품목할인 *일부 품목 제외
- ② 구매금액대별 할인 *25/50/75/100만원 결제 시 1/2/3/5만원 할인 (단, 회원에 한함)
- ③ 신규회원 가입 후 첫 구매시 1만 포인트 적립 *SNS수신동의 및 10만원 이상 결제시

정관장에서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
www.kgcsop.co.kr

기대할 필요 없는
매장 픽업

마음을 대신 전하는
정물 배송

소중한 분께겐
특별 포장

'오겜' 맛본 넷플릭스 "10편 더!"... 'K라인업' 공개

韓신작 총 25편 공격적 마케팅
K콘텐츠 글로벌 시청 6배 상승
투자액 확대... 6년새 1兆 훌쩍
網 사용료·요금인상 논란 속세

넷플릭스가 한국 정부가 담긴 K-콘텐츠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예고된 신작 수도 지난해 대비 10편 늘었다.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어 전 세계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속속 들어서며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자신 있다"라는 공격적 마케팅을 예고했다.

넷플릭스는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한국 콘텐츠 공개 예정작 목록을 공개했다. 올해 넷플릭스가 공개할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는 총 25편이다. 지난해 대비 10편 늘었다. 가장 먼저 선보일 콘텐츠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고등학교의 상황을 다룬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으로 28일 공개를 앞뒀다. 또한 '소년심판',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등 시리즈(드라마) 작품과 '모럴센스', '정

숫자로 보는 넷플릭스

- 2022년 넷플릭스 한국 작품: **25편 이상** (2021년 대비 10편 증가)
- 넷플릭스 국내 구독 가구: **500만 가구** ※ 2021년 말 기준
- 해외로 통하는 넷플릭스 한국 작품: **6배 증가**
-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해외에 공개한 한국 작품: **130편 이상**

이', '20세기 소녀' 등 영화 작품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 금액은 이미 1조 원을 넘겼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제공한 한국 작품 수도 130여 편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가 올해 동안 한국 콘텐츠에 투입할 금액은 수천억 원 규모로 점쳐진다. 지난 한 해 넷플릭스가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 15편에 투자한 금액이 5500억 원 규모인 데서 역산한

다면 9200억 원대도 예상할 수 있다.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 VP는 "지난해는 한국 창작자들이 잃어 온 자력이 한껏 빛을 발한 한 해"라며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한 전세계 회원의 시청 시간이 2019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VP는 "한국의 약 500만 명의 유료 구독 회원이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끽하고

있다"며 "이런 애정에 힘입어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업계를 향한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콘텐츠 투자 금액을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히 알기 힘들다"면서도 "지난 한 해 투자한 금액이 5000억 원이 넘는데, 제작하고 선보인 오리지널 타이틀이 15개"라며 "올해는 25개를 발표한 만큼 저희 콘텐츠 투자 금액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국내 요금제를 인상한 데 대해서는 "요금 인상은 힘든 결정"이라면서도 "배이직 요금은 올리지 않았고,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고객들에게 그만큼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진출 이후 처음으로 구독 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올해 실제 단행한 데 대한 설명이다. 다만, 망 사용료 부과와 요금 인상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논의"라며 "두 가지가 연결돼 있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와 스트리밍 서비스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고객을 위해 최대한의 밸류를 전달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불붙은 다른 글로벌 OTT와의 경쟁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 VP는 "1~2년 새 한국 진출을 결정한 미디어 기업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경쟁 환경 속에서도 자신 있다"며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있고 라이선싱, 제작 등 협업한 지 6년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창작 생태계와 가장 잘 합을 맞출 수 있는 파트너가 넷플릭스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다원 기자 leedw@

"백신 이상반응 방역패스 예외... 변이환자도 재택치료 전환"

접종 뒤 입원·인과성 불충분 대상
방대본, 24일부터 '예외확인서'
치료센터, 고령·기저질환자 집중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범위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치료자 등이 포함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중 피해보상 신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와 입원치료를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범위에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

례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없다. 방대본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영업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피해보상 신청을 거쳐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대상자들

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사실을 통보받게 되며, 별도 절차·진단 없이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 등 전자출입명부를 업데이트하면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로 된 예외 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입원치료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다. 이상반응 의심증상 종류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입원 확인서와 의사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야 한다.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전국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종이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는 앞으로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패스를 방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방역·의료체계 전환 준비에 나섰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

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5명으로 지난해 12월 30일(5037명) 이후 20일 만에 5000명을 넘어섰다. 전주 수요일(발표 기준, 4385)과 비교해선 1046명 늘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점유율이 높아진 탓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주말을 전후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점유율 50% 이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일일 확진자는 단기간 내 1만 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해 실시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으로 집중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설날·추석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사교·의례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설날·추석 기간	나머지 기간	이제부터 설날·추석 기간에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가 두 배로 상향됩니다
20만원	10만원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 2022년 설에는 '22. 1. 8 (토) ~ 2. 6 (일)

농축수산물
육류, 과일, 인삼, 화훼 등

농축수산물기공품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김치, 전통주 등

농가에도 큰 힘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대출만기 다시 연장? 은행, 출구전략 마련 고심

3월 종료 안갯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추가 연장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내외 경제 상황과 정치 변수가 혼재하면서 당장 3월 말에 종료하기 어려울 것이라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주재한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3월 말에 당장 종료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 데다 대통령 선거(대선)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현 정권, 차기 정권,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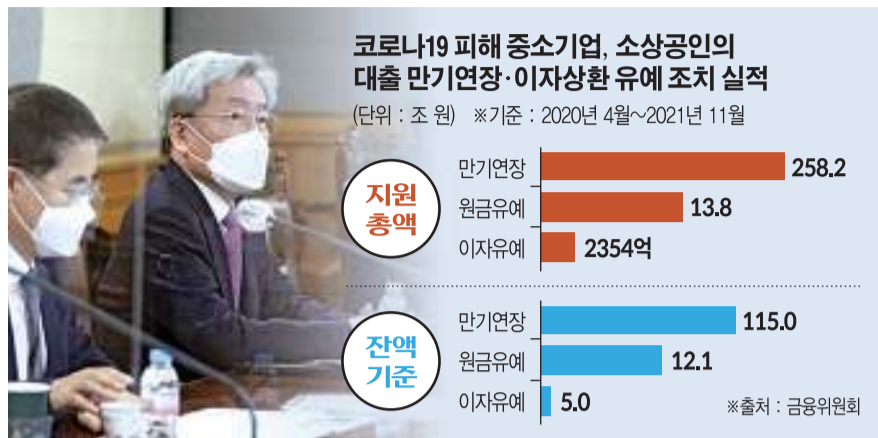
금융위, 연장 가능성 내비쳐

현·차기 정권, 국회 모두 관여
자영업자 대출 부실 판단 어려워
연착륙 실패하면 줄도산 우려

와 모두 얘기를 나누야 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조치 종료 시기가 대선과 같은 3월이어서 이번에 종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대선 주자들도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보상과 지원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채 등 부채가 과중한 중·신용 소상공인을 신용사면할 계획을 세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약을 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SNS에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도 커졌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의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견해를 밝혔다.

이날 고승범 위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자 유예 조치부터 종료 △연장 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일정 규모 이상 중소기업 원금·이자유예 조치 우선 종료 등을 제안했다.

은행권은 이번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와 추가 연장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실성 있는 출구전략 없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실이 은행권까지 전이되며 줄도산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연착

륙 방안에 대한 고심이 깊은 것이다.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끝난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실 현실화에 대비하고는 있으나,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원금, 이자 상환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면 대출의 부실 가능성,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으나, 금융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연착륙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향후 이들의 부채가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지 고민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재 한계기업을 판단할 수 없어서 (금융 지원 조치가) 더 연장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종료해서 건전성 등을 점검해 봐야 한다”며 “연착륙 준비를 계속해왔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이후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을 준비 중이다. 상환 여력 범위 내에서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고 상환 애로 차주에 대해 선제적 채무 조정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총 3차례 연장됐다. 만기 연장에 258조2000억 원, 이자 유예 2354억 원이 지원됐다.

서지희 기자 jhsseo@
김유진 기자 eugene@

“탄소집약 비중 높아 체질개선 필요 기후중립적 생산성 정책 반영 해야”

한은 ‘기후변화...영향’ 보고서
탄소생산성 높아지면 매출 늘어
기업 성장잠재력 지수로도 해석
한국 88... OECD 124 못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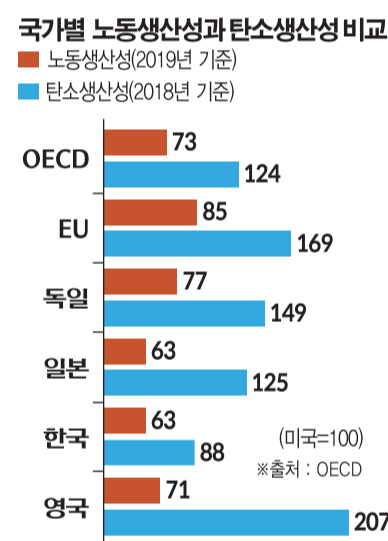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탄소생산성(탄소배출량 대비 국내총생산)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만큼, 환경과 성장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한국의 탄소생산성은 미국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88에 그쳤다고 밝혔다.

탄소생산성은 기준 단위가 되는 탄소배출량당 생산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크기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생산성 지표다. 탄소생산성이 높아지면 매출 증가 등 기업 가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지표로서도 적합하며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지수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탄소생산성(88)은 OECD 평균(124)을 크게 밑돌 뿐 아니라, EU(169)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탄소생산성 증가율에서 노동생산성(노동투입량 대비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뺀 격차를 봐도 한국은 -0.6%포인트로 OECD 평균(1.7%포인트), 영국(3.1%포인트), 미국(1.6%포인트), 독일(1.7%포인트), EU(0.9%포인트), 일본(0.5%포인트) 등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탄소생산성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경제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연구개발 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발전·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산업화 등 근본적인 산업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위한 범부처 성격의 R&D사업 추진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안과 지원기금 신설 등을 꼽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정선영 부연구위원은 “탄소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등장했을 때, 보편적 이슈로 접근하다 경제적 이슈로 넘어왔다”며 “기후변화라고 하면 보통 환경적 측면에만 초점에 맞춰지는 게 많은데, 사실 거시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기후중립적 생산성을 도입해 장기간 생산성 지표를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록 기자 sy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올 설 선물은
우 리
농 축 산 물 로

농업인을 위해!
농협과 함께!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개정**, 공직자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상향

-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농축산물이라면 20만원까지 가능 (일반 선물은 5만원 이하만 가능)
- 적용기간: 2022년 1월 8일(토)~2월 6일(일)
- 부모, 형제, 친구 등 일반 국민들끼리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

새해 **행복** 많이 반겨주세요

美 금리·인플레이션 습격... “자산버블 붕괴 리스크 관리를”

韓경제 ‘퍼펙트 스톰’ 주의보

회사원 이 모(37) 씨는 요즘 속이 탄다. 지난 12월 증권사에서 4000만 원을 빌려(신용융자) 카카오에 투자한 그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탈세 의혹까지 불거질 줄 몰랐다. 이리다 반대매매당해 강제 청산당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 씨와 같은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이마에 주름살이 더 늘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전망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인플레이션, 유가 급등 등 악재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다. 이자 부담은 속 편한 격정이다. 몇몇 개미들은 증권사로부터 반대매매(시세 급락에 따른 강제 주식처분)를 통보받고 ‘멘붕’(심리붕괴·정신이 무너짐) 상태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 씨는 고심하고 있다.

국내 증시는 어디로 향할까.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를 ‘변동성’과 ‘리스크’ 확대에 요약했다. 시장이 글로벌 긴축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세계 경기의 방향,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의 줄다리기에 따라 휘청일 것이라 전망이다.

◇美 금리·인플레이션·유가 급등 3중고 = 미국 국채와 인플레이션이 초미의 관심사다. 18일(현지시간)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1.879%까지 급등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세계 금융시장이 미 국채 금리에 연동된 까닭에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긴장하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 국

증시 위축·기업 자금난 악화 등 금리 인상·동시다발 악재 우려

韓, 가계 실물자산 보유비중 64%
美·日 등 선진국 대비 크게 높아
부동산 조정 때 부채 부담 눈덩이

면에서 금리까지 덩달아 오른다면 주식시장 위축 등 자산 버블 붕괴와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 등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소비지출이 상승률이 향후 2~3개월간 계속 우상향하는 구간이라면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에 따른 통화정책 구체화 여부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다”며 “당초 예상과 달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선진국 가계의 이동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보유 비율이 높아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자산 매각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이 일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빚을 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매한 ‘영끌·빚투족’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보유 비중은 64%로, 미국(29%)이나 일본(38%)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그만큼 금리 상승으로 부채 상환 부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는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과 금융 기업의 실적 부진에 급락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5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84%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 급락한 14,506.90에 장을 마감했다.

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맞게 되면 가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위험이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 1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잔고는 23조5636억 원. 상당수는 주가가 급락하면서 강제 청산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3일 기준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4.9%로 집계됐다. 위탁매매 미수금(2832억3900만 원) 대비 실제 반대매매금액은 146억7800만 원으로 지난달 31일(79억1700만 원) 대비 85.39% 증가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S&P500과 나스닥 시가총액 비중 추이를 보면 지난해부터 다소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초 들어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과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

◇첫째도 둘째도 ‘리스크’ 관리 =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세에서는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긴축기조 전환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진 만큼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일제히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색 코블스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가져올 충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올해 가장 역점적 잠재 리스

크에 대한 선제적 감독”이라고 전했다.

국내 증시의 향방을 가늠 분기점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추이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어느 정도 판가름 나는 시기부터 상승과 하락 여부를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트리플 긴축 리스크가 잠자고 있던 회색 코블스를 깨우고 있다”며 “가장 큰 변수인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1월 말 또는 2월 초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공급망 차질 완화로 물가가 1분기 중 정점을 통과하고 경기 모멘텀 역시 살아난다면 리스크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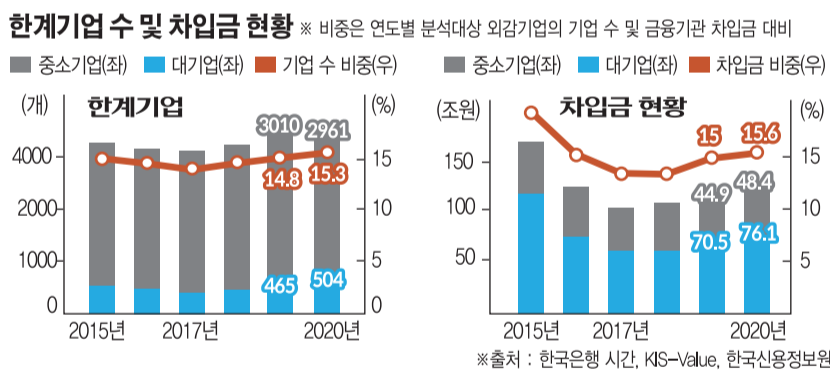
빛 많은 상장사들, 자금 조달 ‘한파 주의보’

금리 인상에 유동성 줄어들어 한계기업 증가로 좁비시장 우려
외인 자금 이탈·은행 부실화 등 금융시장 도미노 악재 가능성

미국의 긴축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전망에 부채비율이 높거나 빚으로 살아가는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고 국내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해 상반기 결산법인 기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한국가스공사(386.0%), LG전자(228.2%), LG 디스플레이(157.5%), 한국전력공사(122.5%), KT(111.6%) 등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CJ프레시웨이(438.2%), SK머티리얼즈(292.3%), 서부T&D(183.1%), KCC건설(161.5%) 등이 부채기업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영업이익으로 빚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3년간 계속되는 기업을 뜻하는 ‘한계기업’도 치솟는 금리가 걱정이다. 한국은행의 ‘2020년 한계기업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분석대상 외감기업 2만



2688곳 중 한계기업 비중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15.3%였다. 한계기업들이 빌린 차입금은 124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 원 늘었다. 외감기업 총차입금 대비 비중은 15.6%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취약기업(취약 지속기간 1~2년)의 비중(기업 수 19.9%, 차입금 20.4%)은 과거 5년 평균(16.6%, 16.8%)을 웃돌았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영업손실 등으로 2020년 중 처음 취약기업이 된 기업의 비중(기업 수 14.8%, 차입금 13.7%)도 과거 5년 평균(11.7%, 10.5%)에 비해 늘었다.

‘한계(좁비)기업’이 늘어나면, 주식시장도 ‘좁비시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유동성 기반 장세도 약해져 활기를 잃을 가능성

이 크다. 기업들이 돈을 빌린 은행도 부실채권에 휘청일 수 있다. 이를 살리기 위해 서민들의 빚(세금)을 쏟아붓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기준금리 인상이 더 많은 기업을, 더 빨리, 더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무너지면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개미들은 지옥에 빠질 수 있다. 차질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봉주 국제금융센터 부연구위원은 “미국 국채 금리가 컨센서스를 웃돈다면 4인플레이션 착시 4연준의 물가 용인 한계 우려 등으로 시장의 이야기가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환율 급등에... 달러로 눈 돌린 투자자

외인, 환차손 우려에 매도 러시
은행 달러 예금 63억달러 늘어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전망과 유가 상승,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등 동시다발 악재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누르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다.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95.72로 전날보다 0.59% 올랐다.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 외국인들이 투자한 국내(신용)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우려한 외국인들이 국내(신용) 주식을 팔아 주가가 떨어지고, 달러 빚을 진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등 한국 등 신용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를 걱정하며 서방 국가들에 경고를 보냈다. CNN에 따르면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의 ‘다보스 어젠다 2022’ 특별 연설에서 “주요국들이 통화 정책에서 급제동을 걸거나 유턴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 안정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며, 개발도상국들이 그 타격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인민은행은 17일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정책자금 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2.95%에서 2.85%로 21개월 만에 전격 인하했다.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로 미국 기준금리 강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이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국 국채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달러 가치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은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한국과 미국의 긴축 부담이 양국의 금리 상승을 부추긴 가운데 국내는 추경 계획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부담으로 추가 상승 부담이 잔존한다”며 “외국인들의 채권 자금 유출이 우려되면서 원화 약세에 지속해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달러 강세가 거꾸로 기회가 될 수 있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KOSEF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ETF의 6개월 수익률은 8.17%로 나타났다. KODEX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와 TIGER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는 8.10%, 7.89%를 기록했다. 해당 ETF는 달러 상승률의 2배 수익을 추종한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9.53%)과 해외주식형(-0.39%)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반대로 달러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도록 설계된 ETF들의 최근 6개월 평균 수익률은 -6.83%였다.

은행의 달러 예금도 증가하고 있다.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94억3421만 달러(약 71조2319억 원)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3억 달러 증가한 수준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美 긴축에 세계 금융시장 ‘비명’

▶1면서 계속

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61달러(1.9%) 오른 배럴

당 85.43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 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1.03달러(1.2%) 뚝 배럴당 87.51달러로 집계됐다. WTI와 브렌트유 가격 모두 2014년 10월 13일 이후 최고치다. 코스피지수는 다섯째 하락해 2840선으로

추락했다. 19일 전일보다 0.77% 하락한 2842.28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1.06% 내린 933.90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6원 오른 1191.7원으로 장을 마치는 등 달러 강세도 계속됐다. 아시아증시도 미국증시 부진을 이어받아 19일 일제히 하락했다.



이재명(왼쪽 사진) 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가상자산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소화형 공약 1호'를 NFT로 발행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같은 날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신태현 기자 holjjak@

<가상자산 공개>

ICO 허용 한목소리...컨트롤타워 설치엔 온도차

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경쟁 李, 부동산 개발이익 1000조 코인 분배 尹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만 발행 허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공약 경쟁을 벌였다. 두 후보는 국내 ICO(가상자산 공개) 허용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컨트롤타워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자산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서울 강남구에서 가진 가상자산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국내 ICO가 법적 근거도 없이 (법

무부 판단으로) 금지돼 있어 외국에서 상장된 코인을 거래하니 일종의 국부 유출"이라며 허용 의지를 밝혔다. 금지의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업권법 제정과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후보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ICO 허용 의지를 밝혔다. 다만,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IEO(거래소 공개) 방식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공신력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발행한다면 투자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거래 신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 ICO 허용을 공약한 만큼 윤 후보와 맥을 같이 한다.

두 후보는 이와 함께 업권법 혹은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와 NFT(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지원도 약속했다.

차이점은 컨트롤타워 유무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과 NFT 등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을 맡을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계획을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독자 가상자산 모델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이익을 나누는 참여 권리를 주고 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하면, 참여 기회 자체를 팔 수 있게 가상자산과 결합하면 안정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커지면서 이익이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 선대위가 검토 중인 1000조 원 규모 부동산 개발이익 기반 가상자산 발급 구상(이투데이 단독 보도)과 맥을 같이 한다. 김포공항 이전을 전제로 개발이익 1000조 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자금 조달을 가상자산을 발급해 전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원화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부채의 실질가치를 0으로 떨어뜨려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는 연구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나 보다"라며 "이렇게 하면 부채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산도 0이 된다"고 비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주술의힘당" "언어성폭력" 진흙탕 대선...설연휴 TV토론이 분수령

막장 통화 파일 대결...지지율 앞치락

50일도 남지 않은 대선이 역대급 진흙탕 선거전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무속인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을 향해 '굿힘당', '무당선대본'이라고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미공개 녹음 파일'을 두고 '조폭·육살' 표현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측 불허의 '막장 박빙 승부'에서 민심을 좌우할 최대 변수는 첫 TV 토론이다. TV 토론 방영 시점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 온 여야는 19일 '설 연휴'로 합의점을 찾았다.

민주당은 19일 '무속인'과 국민의힘 선대본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선거공식기구에 대놓고 무당을 임명할 정도면 사메니즘 숭배"라며 "국민의힘당도 주술의힘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다"며 "최순실의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도 '무정 스님'의 주선으로 윤 후보와 결혼했다는 부인 김건희 씨 발언을 언급하며 "윤 후보 부부 뒤에 무속인들의 그림자가 어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역공에 나섰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육살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 35건을 18일 공개하자, 국민의힘은 "이 정도면 이재명 후보 '육살'을 넘어서 '언어 성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전과 4범에 입에 담지 못할 형수 육살의 장본인, 권력을 위해서 가혹도, 자식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화신"이라고 맹폭했다. 또 "MBC가 불법으로 녹취된 김건희 대표의 음성파일을 방송했다"며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형수육살 음성파일도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분량으로 방송하라"고 촉구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 2위를 다투며 앞치락뒤치락하고 있다. TV 토론이 민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은 방송사 요청대로 27일 밤 10시, 국민의힘은 설 전날인 31일 저녁 8시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양측은 TV토론을 설 연휴기간인 30일 또는 31일에 진행하는 방안을 방송사에 제안하기로 했다. 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3 후보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李 "60세 은퇴자에 年 120만 장년수당"

임플란트 건보 적용 65→60세로 하향 "연 3조 예산이면 가능" 재원 우려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국민연금 감액 조정,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건보) 적용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개최한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장년수당은 60세 혹은 이전에 은퇴한 뒤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에 대해선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부부의 경우 20% 감액한다"며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관해선 "지난해 약 10만 명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었다"며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플란트에 관해선 현행 건보 적용 연령인 65세를 60세로 낮추고, 개수도 2개에서 4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추가 재정은 1000억 원 미만이라는 게 이 후보의 추산이다.

이 후보는 일각의 재원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필요 예산 추계를 묻는 질문에 "제 생각으로는 연간 3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가예산) 자연증가분만으로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고, 노인 복지 확대는 여야 이론편이 없어서 포퓰리즘 지적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들에 대한 예산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훨씬 소액으로 효율적으로 산정된 공약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군 복무 취득 학점 확대 등 장애인 복지 공약도 발표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최초로 도입했던 제도로, 현행 군인재해보상법보다 보상 범위와 수준을 넓히는 내용이다. 군 복무 취득 학점도 확대한다. 현재 일부 대학만 실시하는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대상을 넓히고, 온라인 취득 학점도 연간 12학점에서 21학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유혜림 기자 wiseforest@

尹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 선택 도입"

개인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 5대 공약 저상버스,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이동권 확대 등 다섯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되어서 안 된다. 저는 차별과 편견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장애인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이동권 확대 △복지서비스를 위한 개인 예산제 도입 △직업훈련 강화 △문화예술활동 지원 △발달지연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이다.

이동권 확대와 관련해 윤 후보는 "현재 시내 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 고속, 광역 버스로 확대 운영하겠다"며 "중증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서 버스 대기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돕는 내비게이션

기술투자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개인 예산제 도입을 통해 장애인이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우처를 주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 예산제를 도입해 복지 선택의 폭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에서 주장해 온 장애인 주거결정권과 관련해선 장기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오후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화재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 안내견을 착용하고 안내견 보행 체험도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를 접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른 상황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과 역내 정세, 다양한 국제사회 의제에 관한 양국 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후보는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수교를 하고 30년 넘게 양국 관계가 발전해 왔다"며 "더 많은 지역 투자, 경제·문화 교류가 왕성해져야 하고 기후 변화 등 국제 이슈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박준상 기자 joooon@

두산중, 사우디 최대 주·단조 공장 짓는다

아람코 자회사와 1조 합작 협약
양국 조선 분야 8조원 투자 기대
문대통령,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
“에너지·디지털 등 5대 분야 협력”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 킹살만 해양산업단지에 9억4000만 달러(약 1조1209억원) 규모의 주조·단조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나라는 2016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에 합의한 뒤 두차례의 장관급 회담을 포함해 총 여섯

차례 회의를 열어 양국 간 협업 모델을 발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우디 공식 방문을 계기로 이날 양국 대표단은 3차 위원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신규 협업 모델을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사우디 킹살만 해양산업단지 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조선 분야 연계진출로 총 66억 달러(약 7조8705억원) 규모의 합작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두 나라는 사막지대의 기후 특성에 따른 사우디 내 대체수원 확보를 위해 사우디 맞춤형 해수담수화 기술을 개발해 3월 중 파일럿 플랜트 운영에 착수한다.

아울러 사우디 측 관심 사항인 창의성·혁신·인공지능 분야 등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도 강화하며 양국 중소기업과 스

타트업 분야 합작투자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자와 사우디모데펀드 간의 금융지원 협력에도 합의했다. 이미 양국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파트너 연결 등을 포함하는 투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조만간 합작 중소기업 설립도 예상된다.

기업들의 수주노력도 이어졌다. 두산중공업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산업투자공사 두수르, 사우디 아람코의 완전 자회사인 사우디 아람코 개발회사와 주단조 합작회사인 ‘TWAIG Casting & Forging’ 설립을 위한 주주 간 협약 수정안을 체결했다. 또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등과 수소 생산·연료류 천연가스 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 공동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원전 수출 세일즈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는 등 경제외교를 펼치며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지원했다. 문 대통령은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열린 모하메드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양국은 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디지털, 보건, 중소기업 등 5대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으며 수소에너지, 원전과 방산, 지식재산과 의료 등 미래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탄소제로 환경도시 ‘네움 시티’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하면서 수소 분야 협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리야드 리츠칼튼에서 양국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미래협력을 제안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중소 청년 정규직 채용 1인당 960만원 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1년간 최대 960만 원(1인 기준)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전용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이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예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에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취업예청년을 채용한 5인(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상 중소기업이며 5인 미만 성장유망업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및 미래유망기업 등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 요건은 6개월 이상 연속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의 취업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원 인원은 총 14만 명이다. 기업당 지원 인원 한도는 최대 30명이며 이 범위 내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00% 한도로 지원을 받는다.

지원 요건을 갖춘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 들어가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 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면 고용센터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고용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예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접수

손실보상선지급.kr

본조의 접수 후 신청 가능, 1분기 기준에는 해당 월분부터 지원 가능, 5분회기 적용되지 않는 1.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지원금액
일당 500만원

지원방식
- 신청일분 → 10월급차감
- 10년분상환 3년제로 진행

지원대상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일반 선지급에서는 0/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업자 이상에 대해 지원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깎되 대상 2배 늘린다

정부 보조금 지침 개편
16만대·최대 700만원 지원
차량 8500만원 넘으면 제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은 낮추는 대신 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지원금 차량 가격 기준은 낮춰 보급형 전기차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먼저 전기 승용차 보조금 대상은 지난해 7만5000대에서 올해 16만4500대로 늘어난다.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지원 대수가 확대된다.

대신 최대 보조금액은 줄었다. 승용차는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 대형 승합차는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방편으로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줄어든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지난해 60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으로 인하되고, 50%를 지원받는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미만은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최대 가격은 90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5500만 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을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은 기존 목표 달성 보조금에

더해 무공해차 목표치에 따른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의 경우 2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은 여기에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 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정부, 영세사업장 산재 예방 위험 설비 교체 1.7억 지원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가 집중된 50인 미만 중소기업장에 대해 위험기계 교체 및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최대 1억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022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을 20일부터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비해 많은 중소기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장의 산재 사고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

지원규모는 3200억 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 대 교체와 1500여 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 위험기계·기구 교체 지원 대상을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기존 3종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해 총 9종으로 확대했다.

추가된 6종은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 등이다. 지원 비용은 교체 소요 비용의 50%이며 최대 한도는 7000만 원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12월 매매가 상승세 최대폭 둔화 민간 사전청약 3만8000호 공급”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봤다. 특히, 사전청약 제도가 이 같은 안정세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엔 매월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등 물량을 전년보다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

를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했고 하락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됐다”며 “서울(-0.48%), 수도권(-1.09%), 전국(-0.91%)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고 전했다.

그는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둔화됐다”며 “매수심리를 제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1월(62.2%) 대비 15.3%포인트(P) 하락한 46.9%로 연속 최저치를 재경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이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사전청약 제도가 젊은 세대의 추격 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에는 물량 확보와 질적 제고라는 측면에서 주택공급의 첨병인 사전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전청약 물량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면적·브랜드 등 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000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 도심지역과 공공자가 주택의 사전청약을 최초로 실시하고, 3기 신도시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수요자 친화적 공급유형을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2월 의왕 고전 등 6000호, 3월 인천 영종 등 9000호를 포함해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하며 대국민 제감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홍남기 “부동산 하향 안정세 속도...사전청약 을 7만호로 확대”



☆☆☆ **그린수소 에너지 세상,
누가 열고 있을까?**

푸른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를 만드는 일,
친환경 시대를 맞이하는 포스코의 혁신입니다

생산부터 활용까지, 탄소 발생 없는 그린수소로
에너지를 더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수소 에너지 세상, 포스코가 열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Green Tomorrow, **With POSCO**

'82조 빅딜' 블리자드 품은 MS... 메타버스 직행

2016년 링크트인 인수액의 3배 단숨에 세계 3위 게임업체 부상 모바일게임 진출 일석이조 효과

글로벌 게임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18일(현지시간) '스타크래프트', '콜 오브 듀티' 등으로 유명한 게임업체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82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S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2016년 262억 달러에 인수했던 소셜 미디어 링크트인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 글로벌 게임업계 사상 최대 M&A이기도 하다.

블룸버그통신은 블리자드가 사내 성폭행 이슈로 회사 안팎의 거센 비난에 휘청거리

MS가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한 5가지 이유

번호	구분	내용
1	규모	텐센트와 소니 이어 세계 게임업계 3위로 급부상
2	모바일	게임콘솔 엑스박스 외에 모바일 게임에도 진출
3	앱스토어 수수료 우회	애플의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게임 유저 직접 다운로드 유도
4	메타버스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 관련 전자상거래 등 생태계 구축
5	3C 전략	콘텐츠(Contents), 클라우드(Cloud), 크리에이터(Creator) 통합 전략



는 상황임에도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가 이처럼 통 큰 베풀어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블리자드를 손에 넣음과 동시에 단숨에 중국 텐센트와 일본 소니에 이어 세계 3위 게임업체로 발돋움하게 된다. 텐센트는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니는 MS의 게임 콘솔 엑스박스(Xbox)의 경쟁 제품 플레

이스테이션 제조업체다. MS는 엑스박스를 통해 20여 년 전 게임산업에 처음 발을 내디뎠지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의 인기

이제까지 진출하지 못했던 모바일 게임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액티비전은 인

기 모바일 게임 '캔디크러쉬사가'를 개발한 '킹'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모바일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게임 분야다.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를 우회할 통로를 확보한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MS는 그간 애플의 앱스토어가 게임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플레이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이 사라

지게 된다.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사업에 대한 포석을 깔게 됐다

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메타버스'가 화두다. 페이스북은 사명도 '메타'로 바꿀 만큼 사활을 걸었고, 여러 기업이 메타버스 대표주자 로블록스와의 협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델라 CEO는 궁극적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MS는 블리자드 인수로 개발자가 대다수인 이 회사 인재 1만 명을 확보하게 된다. 나델라는 "메타버스의 비전에 대해 생각할 때 중앙 집중식 시스템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 상거래 및 앱으로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러시아 종교축제... 한겨울에 얼음물 입수

러시아 정교회의 예수 공현 대축일인 18일(현지시간) 수도 모스크바의 '홀리 트리니티' 성당에서 신자들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 얼음물 목욕을 하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의 공현 대축일은 예수가 요르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모스크바/AP연합뉴스

전략물자 자립 나선 대기업 '中과 거리두기'

미중 분쟁 변수에다 中 인구감소 고려 유럽 亞 등과 협업, 생산 다변화 나서

일본 기업들이 중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인구 절벽 문제를 겪는 점이 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개발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 포함하며 자금자속에 나선 데 이어 기업들도 독자적으로 새로운 터를 찾아 나서고 있다.

19일 닷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업체이자 아이폰 부품 공급사인 일본 무라타제조사는 2023년 10월 태국에 새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새 공장은 현재 상하이 인근에 있는 우시공장과 같은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매출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 중인 무라타는 향후 성장 거점을 인도-태평양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나카지마 노리오 사장은 "미국이 중국에 기술 제재를 가한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결정 이유로 들었다. 이어 "애플과 같은 주요 고객사도 중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정학적인 이유와 함께 인구통계학적 문제도 꼽았다. 나카지마 사장은 "오늘날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이지만, 2030년엔 인구가 될 것이고 나아가선 아프리카가 될 것"

이라며 "이들 경제가 미국이나 중국과 함께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우린 두 시나리오 모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번 주 지난해 자국 출생률이 0.75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반도체 1위 제조업체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내 공급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매출 22%를 중국에서 올리고 있는 르네사스는 지난해 영국 다 이얼로그반도체를 60억 달러(약 7조 원)에 인수하는 등 기술·생산 기반 다변화에 나섰다. 특히 유럽의 경우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점유율을 최소 20%로 올린다는 계획인 만큼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고대영 기자 kodae0@

美기업 CFO 채용 트렌드 "흑인·여성 우선"

미국 주요 대기업들이 최고재무책임자(CFO)에 흑인, 여성 발탁을 늘리고 있다. 통상 고위 임원 인사에서 이들은 비주류로 분류됐지만, 최근 '다양성'이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되면서 여성과 흑인의 입지가 더 커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P500 기업, 포춘 500대 기업 중 흑인이 CFO로 있는 회사는 2020년 12개에서 지난해 20개로 1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조사 대상인 CFO 678명 중 흑인 비중은 1.8%에서 2.9%로 1.1%포인트 커졌다. 같은 기간 여성 CFO 비율도 12.6%에서 15.1%로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흑인과 여성 임원들은 다양한 회사에서 활약하고 있다. 흑인인 파스칼 데스로치는 지난해 4월 통신 대기업 AT&T의 CFO로 임명됐다. 풋락커, 미국교직원보험연금협회 등도 흑인 CFO가 일하고 있다. 엑손모빌, 차터커뮤니케이션 등에서는 여성이 CFO를 맡고 있다.

헤드헌팅회사 크리스토퍼의 공동 매니징 파트너인 조쉬 크리스트는 "이사회가 CFO 직책을 포함한 경영진 구성에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발탁된 임원들은 다른 사업 분야로 확장하거나 조직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매우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임원진 구성에 '다양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에 이를 반영하라는 외부 압박이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는 "2013년 이후 미국 대기업 내 인종,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CFO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12~18개월 흑인, 여성 CFO 채용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흑인이자 미국 동물의약품 기업 조에티스의 CFO로 일하고 있는 웨트니 조셉은 "여러 배경을 가진 CFO나 임원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보다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선 기업이 이들의 초기 경력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아 기자 ljh@

車만 부족한 게 아니다 의료기기도 '반도체난'

필립스, 올해도 공급부족 비침단 반도체 대안 부상 공작기계·가전제품도 비상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산업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에서 반도체 품귀 영향이 장기화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의료기기 선도 업체인 네덜란드 필립스는 최소 올해 중반까지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필립스의 프란스 반 호텐 최고경영자(CEO)는 "공급 부족은 지난해 10~12월 심각해졌다"며 "적어도 올해 중반까지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일부 반도체 리드타임(납품 기간)은 420일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기 등에 이용되는 비침단 반도체의 생산설비 확대가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비침단 반도체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그간 설비투자 측면에서 첨단 라인 뒤로 밀리기 일쑤였다.

반 호텐 CEO는 "반도체 부족은 정밀진단기기 등의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급 제약은 지난해 매출액을 3%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업계의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는 미국 상무부 자료에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상무부는 주요 반도체 제조사와 관련 업계 등에 각종 반도체 가격 동향과 리

드타임 등이 담긴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약 160건이 접수된 자료엔 곤경에 처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많았다고 닷케이는 설명했다.

필립스 역시 미국법인을 통해 자료를 상무부에 제출했다. 자료에서 필립스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벌어지기 전 8~12주였던 리드타임이 1년 이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정 반도체의 경우 60주를 넘기도 했다. 필립스는 "향후 6개월간 조달분으로 2164만 달러(약 258억 원)어치가 필요하지만, 실제 기 대할 수 있는 규모는 1412만 달러에 머문다"고 밝혔다.

후지필름에서 초음파 진단장치 제조를 맡는 소노사이트 역시 상무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요 공급업체 대부분 반도체 납품 기간을 최소 26주로 제시하고 있다"며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수급 압박에 위조 반도체 유통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 기업도 더러 있었다.

공작기계와 가전제품 제조업체들도 의료기기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 역시 비침단 반도체를 사용 중이다. 미국전기공업협회(NEMA)는 "비침단 반도체 기술은 다양한 제품과 인프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차세대 첨단 반도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현 문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호소에도 당장은 공급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컨설팅기업 딜로이트는 "올해 내내 많은 종류의 반도체가 여전히 부족할 것이고, 일부는 2023년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필립스 본사. 암스테르담/AP뉴스

‘벤처기업 재지정’ 물꼬에 가상자산 거래소 ‘화색’

조명희 의원, 가상자산업 포함 ‘벤처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8년 시행사업 분류 ‘배제’
벤처 재지정되면 ‘세제 혜택’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가상자산 사업도 벤처기업으로 간주, 제도권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상자산 사업은 그간 시행산업으로 여겨져 투자·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배제돼왔다. 현행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등 블록

체인 유관 기업들도 시행산업으로 간주,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실제 2018년 두나무와 스트리미(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기간 만료를 남겨놓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해 12월 두나무는 해당 결정에 반발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상대로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 이듬해 나무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정부는 지나친 투자과열·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중개업소들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 밝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에 다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인증’ 일지

2018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벤처인증 중단
12월	중소벤처기업부, 두나무(업비트)·스트리미(고팍스)·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리플포유 4개 업체 벤처기업 인증 취소
2016년 6월	두나무(업비트) ‘벤처기업 인증 취소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2016년 6월	재판부 ‘벤처기업 인증 취소 처분 문제 없다’ 판결
2022년 1월	가상자산 거래소를 다시 벤처기업으로 간주하는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규모가 확대되는 등 관련 기업이 벤처기업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벤처기업에서 밀어냈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 운영 기업들은 향후 세제·정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인 법인세·소득세·취득세 감면 등이 영향을 미칠 것

로 보인다.

코인 발행 프로젝트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리두기로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며 “물밑에서 이야기되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레 전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재포용을 제도권의 입장 선회 시그널이라 간주하는 분위기다. 시행산업으로 간주하거나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더는 규제할 생각이 없다”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를 통해 (부실사업자가) 걸리진 측면이 있어 통과한 가상자산 업체들에 대해서는 포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수없이 노력해 FIU 심사를 통과했지만, 설명계좌가 없어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비즈니스 모델을 알리고, 외부 투자 유치로 연명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벤처기업 재포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특금법 신고를 이미 마쳐 새로운 기업들이 더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거래소들에 대한 투자로 얼마나 생태계가 살아날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제도권에 다시 포함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소는 기자 gogumee@

시중銀 성과급 잔치... 지방은행은 “남 얘기”

가계대출 조이기에 성장 발목
경영악화에 기업대출도 줄어

지난해 예대금리차 확대 호실적을 거둔 시중은행의 성과급 잔치에 지방은행이 소외되고 있다. 지방은행 역시 작년 크게 개선된 성적을 거뒀지만, 임직원 성과급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은행) 중 BNK부산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체적인 2021년 성과급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NK부산은행은 현재 성과급에 관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구은행은 노사 협의는 마쳤으나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전북은행은 노사 협의 중으로 2월이나 돼야 성과급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지방은행 누적 순이익 실적 (단위 : 원)
* 2021년 3분기 기준

은행	누적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부산은행	3681억	42.8%
경남은행	2289억	54.6%
전북은행	2856억	40.3%
전북은행	1195억	31.7%
광주은행	1633억	18.6%

광주은행은 성과급 관련 협의가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행은 성과급 100% 지급을 확정했다.

시중은행이 올해 300% 이상의 성과급을 확정할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노사에서 성과급을 협의하는 중이지만 지방은행의 성과급 수준은 시중은행을 밀돌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방은행도 지난해 크게 개선된 실적

을 거뒀다. 대출 증가세가 컸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예대마진이 크게 늘며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은행별로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40% 늘어났다. 두 자릿수 실적 성장에도 지방은행이 성과급 지급에 적극적이지 않은 까닭은 올해 지방은행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성장세가 제한되고 주요 수익원인 기업대출마저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비대면 영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제약이 없는 빅테크의 영업 확대는 디지털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은행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적자 실손보험 제도 개선” 정책협의체 발족

구조 개선·비급여 관리 강화 추진

금융당국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청구 전산화는 물론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다른 가입자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상품 체계 개편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당국은 기존 실손상품의 4세대 실손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이 전환 실적을 보험사

경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회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관리체계 미흡 등의 원인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를 초과하며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위 의료이용량 10%가 전체 보험

금의 56.8%를 수령하지만, 모든 보험가입자가 부담을 나눠 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 논의과제는 크게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실손청구 간소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방안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수은, 사우디·UAE 국영기업과 금융 약정

13兆 규모...수소산업 수주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 국영 에너지 기업 2곳과 총 110억 달러(13조1131억 원) 규모의 기본여신약정(F/A)을 체결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소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물꼬를 트 것으로 평가된다.

수은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아람코)와 6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 50억 달러 규모의 F/A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F/A는 해외 발주처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한도금액과 지원 절차 등 금융지원 조

건을 ‘사전’에 확정된 후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 등 개별지원 대상거래가 발생하면 신속히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번 기본여신약정 체결로 중동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대형 에너지 사업 수주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특히 수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우대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분야의 신시장 창출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코인원-포스텍 ‘크립토크러니 연구’ 맞손
국내 대표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1 포스텍(POSTECH)과 크립토·블록체인 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업계에서 학계 크립토크러니 연구를 장기간 지원하는 국내 첫 사례다.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 코인원이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해 크립토·블록체인 생태계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사진제공 코인원

국민·농협銀, 예·적금 금리 올린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최대 국민 0.4%p·농협 0.3%p↑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 금리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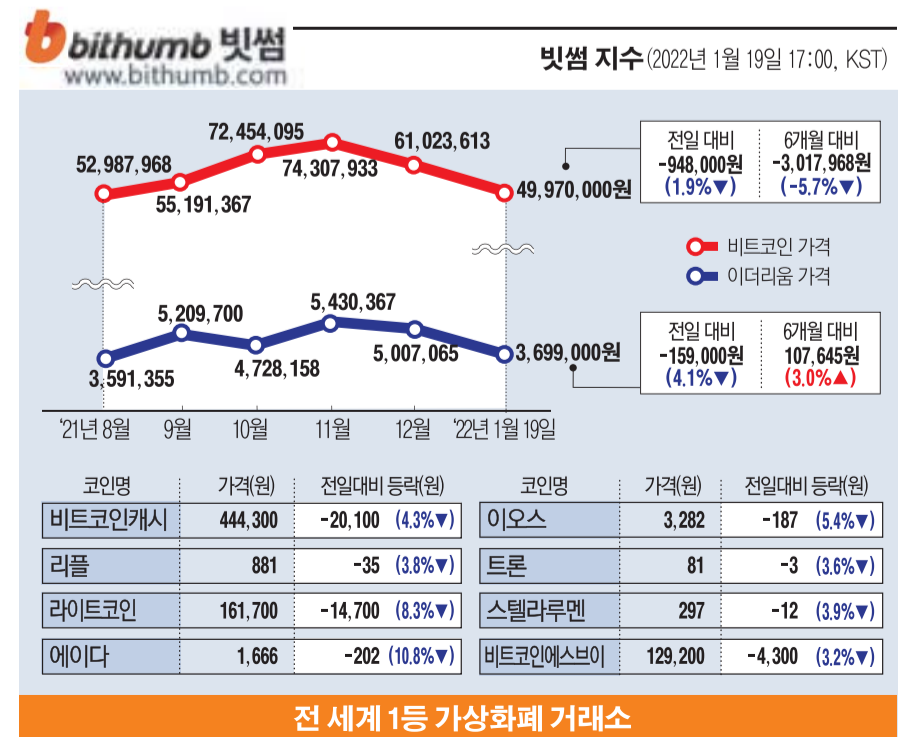
KB국민은행은 국민수퍼정기예금 등 정기예금·시상성 예금 17종 및 KB두근두근 여행저축 등 적립식 예금 20종의 금리를 20일부터 최고 0.40%p(포인트) 인상했다.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전용상품인 KB 반려행복저축은 3년 만기 기준 최고금리가 연 3.35%로 변경된다.

특히 거래 실적에 따라 다양한 우대이율

을 제공하는 대표 상품인 KB국민ONE적금(정액적립식)과 유스(Youth) 고객 및 사회초년생 대상 상품인 KB마이핏적금의 금리를 각 0.4%p, 0.3%p 인상한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KB국민ONE적금(정액적립식) 최고금리가 연 3.15%로 올라간다.

NH농협은행도 19일 거치식·적립식·입출식 예금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일반 정기예금, 자유적립정기예금은 만기가 3년 이상일 경우 기존 1.1%에서 1.4%로 0.3%p 금리가 올랐다.

주택청약예금 1년 만기가 현행 1.5%에서 1.75%로 0.25%p 인상됐다. 정기적금(개인)의 경우 3년 만기 1.35%에서 1.65%로 변경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작년 1·12월간 순매수액 차)

물적분할·경영진 먹튀에 ‘뿔난 개미’… 투자 32兆↓

지난해 월별 투자 살펴보니

코스피 월별 순매수 줄었는데
美주식 거래 실적은 증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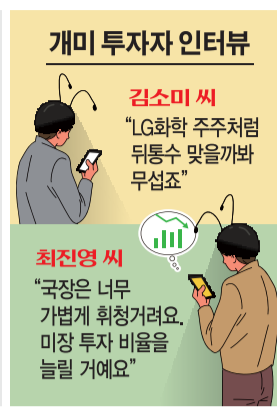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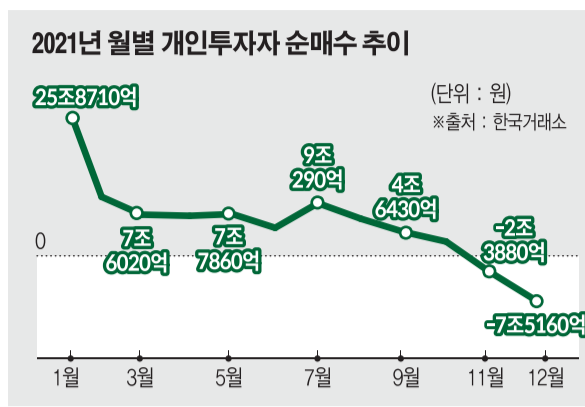
LG화학·엔솔 물적분할 상장에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매각 등
소액주주 신뢰 깨져 ‘이탈 가속’

김소미(28·가명) 씨는 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엔솔) 사태를 보면서 해외 투자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미국 주식시장(미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뉴스에서 추운 날 시위하는 LG화학 주주들을 봤다”며 “국내 주식은 수많은 선례가 있어 LG화학 주주처럼 뒤통수 맞을 것 같아 무섭다”고 말했다. 최진영(27·가명) 씨도 김 씨처럼 국내 주식에서 서서히 손을 떼기로 했다. 최 씨는 “국내시장 가법게 휘청

거린다”며 “현재(국장과 비교해) 40%인 미장 투자 비율을 70%까지 늘릴 것”이라고 했다.

국내 증시를 떠받쳤던 ‘동학개미’가 국내 주식을 판 돈으로 미국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초와 말을 비교한 개인의 주식 거래 실적(순매수)은 25조 원에서 -7조 원대로 떨어졌다. 연초만 해도 25조 원의 주식을 사들였던 개인이 연말엔 7조 원 팔았다는 뜻이다. 월별 순매수를 보면 △1월 25조8710억 원 △2월 9조5960억 원 △3월 7조6020억 원 △4월 7조450억 원 △5월 7조7860억 원 △6월 5조3610억 원 △7월 9조290억 원 △8월 6조9900억 원 △9월 4조6430억 원 △10월 2조9130억 원 등 등락을 반복하며 하락하다가, △11월 -2조3880억 원 △12월 -7조5160억 원을 기록했다. 마지막 두 달은 산 주식보다 판 주식 액수가 더 컸다. 김 씨와 최 씨처럼 국장에서 손을 털고 나간 동학 개미들이 많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이 미장에 투자한 금액은 등락을 반복했지만, 매도가 더 많은 달은 없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월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거래 실적(순매수)은 △1월 45억3200만 달러(한화 약 5조4016억 원) △2월 28억6500만 달러 △3월 27억7900만 달러 △4월 21억6800만 달러 △5월 26억3300만 달러 △6월 24억6800만 달러 △7월 98억 6500만 달러 △8월 54억2900만 달러 △9월 85억5200만 달러 △10월 44억6300만 달러 △11월 26억9300만 달러 △12월 24억7800만 달

러 등이다. 동학 개미들이 국장을 이탈하는 이유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일부 주주에게만 충성하는 기업의 행태로 풀이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소액 주주를 배신한다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까”라며 “안타깝게도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유형의 이슈가 지난해만 해도 비밀비재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는 글로벌 최하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상장 회사가 핵심 부서를 자회사로 떼어내 재상장하는 기업들의 물적 분할이 유행처럼 번져 투자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LG화학-LG엔솔이다. SK이노베이션-SK온, 이마트-SSG닷컴,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등도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알려져 투자자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먹고 튀기)’ 사태도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류영준 카카오페이가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8명은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지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878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영진이 자사주를 대형으로 매각하는 것은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된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교수는 “(기업들은) 국민이 이용해서 기업이 성장했으니 국민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최근의 화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고,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문수빈 기자 bean@

‘날개 없는 추락’ 카카오, 장중 9만원 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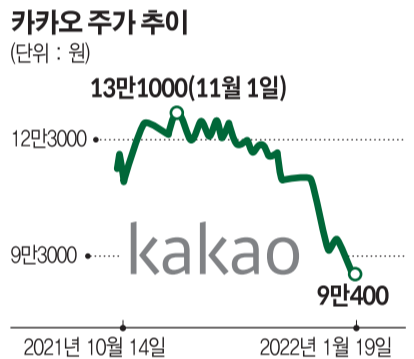
모럴해저드 논란 그룹주 ‘약세’
김범수 의장 탈세 의혹 수사에
하락세 카카오 ‘9만 원 턱걸이’

카카오 3형제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탈세 논란에 카카오 주가는 장 중 9만 원 선이 무너졌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1.74% 떨어진 9만400원에 거래를 마치며 닷새 연속 하락했다. 카카오 주가는 장 초반 8만7300원까지 떨어졌다가 장중 나뭇잎을 즐겼다. 카카오페이(-4.48%), 카카오뱅크(-3.46%), 카카오게임즈(-1.31%) 등도 동반 하락했다.

카카오그룹주는 1월 초반부터 계속해서 약세다. 특히 류영준 카카오페이가 대표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매각으로 인해 모럴해저드 논란에 휩싸이면서 하락세가 커졌다.

여기에 전날 경찰이 김범수 카카오의



장과 김 의장 소유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 원대의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이날도 크게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7일 시민단체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탈세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1월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센터 책임자인 윤영대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측은 김 의장이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할 당시 얻은 양도차익을 보유 주식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설명에 따르면 회계 조작을 통해 케이큐브홀딩스는 3639억 원, 김 의장은 5224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 총 8863억 원을 탈세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카카오그룹주는 연이은 경영진 ‘먹튀’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류 대표는 스톡옵션을 대량 매각해 주가 하락을 야기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1월 10일 사퇴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카카오페이 먹튀,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역시 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중 자신이 보유한 스톡옵션 일부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했다. 차액보상형은 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한 차익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하는 형태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수빈 기자 bean@

지난해 주식결제대금 500兆 돌파

전년 대비 22.6% 늘어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주식결제대금이 500조 원을 넘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예탁원을 통한 주식결제대금이 511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주식결제대금은 2조1000억 원으로 전년 1조7000억 원 대비 4000억 원 늘었다.

주식결제대금은 거래대금에서 거래 당사자가 주고받아야 할 거래대금을 상계한 차액이다.

장내 주식시장 결제대금은 235조1000억 원으로 전년(188조6000억 원) 대비 24.7% 증가했고, 장외 주식 기관 투자자 결제대금은 276조2000억 원으로 전년(228

조4000억 원) 대비 21.0% 증가했다.

장내 주식시장 결제는 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 간 증권 및 대금의 결제를 뜻한다. 주식기관투자자 결제는 장내 주식시장에서의 위탁매매 시 기관고객(수탁은행, 보관기관, 은행, 보험회사 등)과 증권회사 간의 증권 및 대금의 결제를 말한다.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주식거래대금 1경711조5000억 원의 4.8% 수준이었다. 증권결제서비스를 통한 대금 차감액은 1경200조2000억 원으로 차감률은 95.2%였다.

예탁결제원 측은 “증권결제서비스 차감 효과로 최소의 자금으로 증권결제를 마칠 수 있었다”며 “이는 유동성 위험을 줄여 증권시장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평가했다. 박상재 기자 sangjae@

‘주주친화 경영’ KTB네트워크, 30억 자사주 매입

KTB네트워크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3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저평가된 주가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 친화적 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2020년 재무제표 기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결정됐으며, 증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주식 취득을 진행할 예정이다.

KTB네트워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631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 이익 달성을 눈앞에 뒀다.

KTB네트워크는 매년 실적에 상응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창규 KTB네트워크 대표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을 통해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히 전개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신한금융투자-연세대 바이오헬스기술지주 업무제휴

신한금융투자는 연세대학교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금융지문, 자회사들의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 투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분야 법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여러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신한금융투자의 자산관리 경험과 바이오헬스기술

지주회사의 우수 기술을 결합, 다양한 성과를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며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는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신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로서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육성한다. 대학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박상재 기자 sangjae@

예결원, 창업 돕는 ‘K-캠프 부산 3기 데모데이’

한국예탁결제원은 ‘K-캠프’ 부산 3기 프로그램의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K-캠프는 예탁결제원이 주최하고 스타트업이 주관하는 것으로 비수도권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육성 프로그램이다. 부산 3기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

7월 부산, 울산 등의 창업기업 10곳을 선발, 1대 1 맞춤형 멘토링과 투자 유치 등을 진행해왔다.

데모데이는 10곳이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지난 18일 부산역 광장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렸다. 사업 영역에 따라 플랫폼, 기술, 바다 그리고 환경·사회·지배구조

(ESG)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예탁결제원과 스타트업 등 관계자는 심사를 거쳐 우수 기업으로 하비플, 넷스파를 각각 선정했다. 하이플은 취미 생활을 온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커머스 플랫폼이다. 넷스파는 페어링에서 추출한 재생 나일론 원료를 생산한다.

이들은 우수 기업이 모이는 최종 대회에 진출하며 추가 투자유치 기회 등을 얻게 된다. 박상재 기자 sangjae@

미래사업 속도 내는 삼성, 올해 첫 투자도 'NFT'

(대체불가토큰)

'메타플렉스' 투자유치 참여

삼성전자가 새해 첫 투자처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를 선택했다. 지난해부터 NFT,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 투자에 집중해온 행보의 연장선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TV 사업에서도 NFT를 활용한다고 선언하는 등 미래 사업과 접점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19일 삼성전자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NFT 플랫폼 '메타플렉스'(Metaplex)의 4600만 달러(약 549억 원) 투자 유치에 참여했다.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삼성넥스트 외에 솔라나 랩스, 애니모카 브랜드, 리퍼블릭 랩스 등 NFT,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도 해당 투자에 대거 참여했다. 애니모카 브랜드는 삼성의 또 다른 투자 자회사 삼성벤처투자가 지난해 투자를 단행한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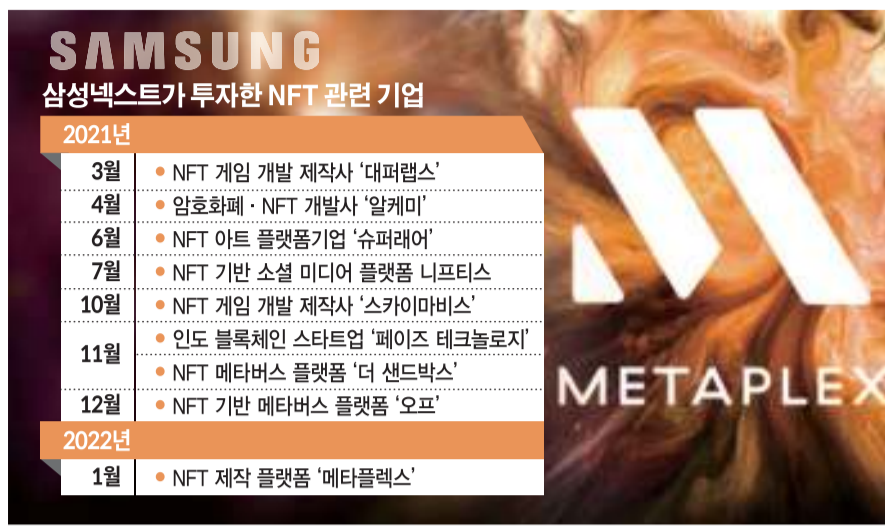
메타플렉스는 제작자, 예술가, 브랜드가

마켓 제작 인프라 지원 플랫폼 무허가형 블록체인 '솔라나' 기반 거래 비용 낮추고 소요시간 단축

삼성넥스트 "성장 잠재력 갖춰"

맞춤형 NFT 마켓플레이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한다. 블록체인 코딩에 대한 별도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NFT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해 6월 사업 시작 이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 500만 개가 넘는 NFT가 메타플렉스 플랫폼 내에서 제작되는 등 해당 시장에서 빠르게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특히 삼성넥스트는 메타플렉스 내에서 이뤄지는 NFT 판매·경매 방식에 주목했다. 메타플렉스 플랫폼은 무허가형 블록체인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는데, 솔라나 블록체인은 PoH(Proof-of-history)라는 핵심 기술을 통해 거래 비용과 소요 시간



을 낮췄다. 평균 거래 비용은 0.00025달러, 블록 생성 속도는 400ms(밀리초)에 불과하다. 기존 이더리움 기반 NFT 플랫폼의 블록 생성 속도는 15초 수준이다.

탈중앙화된 거래 시스템 덕분에 중개인 및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강점이다. 메타플렉스를 통해 생성된 NFT는 아

위브(Arweave)라는 저장소에 보관되는데, 이 보관소를 이용하는 데 드는 일회성 비용 외엔 추가 지출이 필요 없다.

삼성넥스트는 투자 이유에 대해 "메타플렉스를 이용해 NFT를 만들고 경매하는 절차는 다른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에 비해 상당히 경제적"이라며 "메타플렉스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

다"고 밝혔다. 투자를 받은 삼아메타플렉스 사업 영역도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예술품이나 엔터테인먼트 등에 사업 무게추가 실린 상태지만, NFT 영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게임까지 급격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넥스트는 지난해부터 NFT, 메타버스 등 미래 사업 관련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다. 작년 3월 NFT 거래 플랫폼 업체 '슈퍼레이'를 시작으로 대퍼랩스, 알케미, 니프티스, 페이즈, 오프 등이 삼성의 투자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문화·예술, 스포츠, 게임 등의 분야에서 NFT를 활용하며 성장 가도를 밟고 있다.

단순 투자를 넘어서, 삼성전자의 본 사업에도 NFT가 녹아들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도 TV 제품군에서 최초로 NFT 플랫폼이 탑재된 TV 소프트웨어인 '스마트허브'를 공개했다. 집에서도 NFT로 구성된 디지털 아트를 구매하거나 볼 수 있는 방식이다. 노وری 기자 we1228@



"쾌적한 키즈 라운지 놀러오세요" 삼성전자가 19일 서울 신라호텔 '키즈 라운지'에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비스포크 큐브 Air'를 선보인다. 신라호텔 키즈 라운지는 어린이용 도서와 장난감, 편백나무 칩 폴장 등으로 꾸며진 테마 공간이다.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공기 질 관리가 필수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큐브 Air'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LG, 오염물질 줄인 가스식 시스템에어컨 출시

LG전자가 19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상업용 가스식 시스템에어컨(GHP)인 'GHP 슈퍼3 플러스'를 출시했다. GHP는 가스를 연료로 엔진을 구동시켜 냉난방하는 제품이다.

LG전자는 처음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를 신제품에 적용했다. 삼원촉매장치는 초미세먼지·지구온난화 등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THC) 등 기존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질소(N2), 산소

(O2) 등 무해한 가스로 변환한다. 신제품을 KS표준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량이 각각 15ppm, 90ppm, 90ppm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1월 시행되는 환경부의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인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신제품뿐 아니라 기존에 판매된 GHP에도 삼원촉매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강태우 기자 burning@

현대차, 부·울·경에 年100대씩 수소버스 보급

현대자동차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수소경제권' 내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부, 해당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19일 경남 김해시 아이스퀘어 호텔에서 △환경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김해시 △부산·울산·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부울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유원하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부사장)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 허성근 김해시장, 부산버스운송사업

조합 성현도 이사장,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양재원 이사장,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조옥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자들은 '부울경 수소경제권' 구축을 위해 해당 지역에 수소버스 보급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전개한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부터 이듬해에 2025년까지 연간 100대 이상의 저상형 수소버스 '일렉티비 FCEV' 보급을 추진하고,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가격 할인 등 추가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통합 전 부채 털어내자"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소진 총력

마트·가전 등 사용처 대폭 확대 통합 후 재무 안정성 확보 포석 정치권 제도개선 추진 선제대응

항공업계가 마일리지 소진을 유도하기 위해 제휴처를 확대하는 동시에 편리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부채로 인식되는 마일리지를 줄여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 발표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은 이마트와 제휴해 이달부터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 구매 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전에 1400마일을 차감해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최종 결제 금액에서 1만 원을 할인받는 방식이다.

또 대한항공은 삼성전자와 협업해 마일리지로 TV,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한진관광과 손잡고 서울신라호텔, 포시즌스호텔 서울, 부산 파크하얏트,

강릉 씨마크호텔 등 4곳의 숙박권을 마일리지로 판매했다.

제휴처를 확대하는 동시에 마일리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복합결제 서비스인 '캐시 앤 마일즈'를 도입해 항공권 구매 시 최소 500마일부터 항공운임의 20% 이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만큼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제휴처를 늘렸다.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사용몰'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에는 기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때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사용 유도는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마일리지는 항공사 입장에선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이다. 양사는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부채를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 부채를 줄여야 통합 이후의 재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통합 후 두 회사의 마일리지를 합치는 과정에서 고객의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 최대한 마일리

지를 사전에 털어내야 할 필요도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한항공의 이연 수익은 2조5529억 원에 달했다. 2020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이연수익은 최종 매출 거래 시점에 마일리지 금액을 수익으로 환산하지 않고, 추후 마일리지 소진 때 인식되는 수익을 뜻한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한몫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미래경제위원회는 최근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한 개선책을 공약으로 확정했다. 미래경제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마일리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동의 없이 마일리지가 없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사용기한은 10년이다. 이는 외항사보다 길다. 일본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사의 마일리지 사용기한은 3년으로 설정돼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제선 운항이 재개돼 마일리지 사용량도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사용기한인 10년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삼성전기, 테슬라 카메라 모듈 추가 공급 추진

입찰 성공 땐 점유율 50% 도약 글로벌 전장사업 성장 기대감

삼성전기의 테슬라용 자율주행 카메라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차량용 카메라 모듈의 본격 성장이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전기차용 카메라 모듈 입찰에 LG이노텍과 삼성전기, 대만 업체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대상 품목은 테슬라의 모델 S·3·X·Y와 세미(전기트럭), 사이버트럭(픽업트럭) 등으로 사실상 전 라인업이다. 입찰은 1분기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전체 계약 규모는 약 1조 원 이상일 것"이라며

"입찰 결과에 따라 테슬라 내 삼성전기 점유율이 50% 도달 가능성이 거론되며, LG이노텍과 글로벌 양강 구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해 100만대 수준이었던 생산 능력을 올해 200만 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생산 물량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이미 테슬라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 중이다. 테슬라 내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시장 점유율은 약 60~70%, 삼성전기는 약 30~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테슬라가 카메라 모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공급처를 다양화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삼성전기

의 점유율이 5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율주행차량에 있어 차량용 카메라 모듈은 필수 부품이다. 테슬라는 카메라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전기차 한 대당 카메라 모듈이 전방·측방·후방 등 8개가 들어간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8개 카메라를 한 업체에 모두 맡기기도 하고,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예상치 못한 사고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공장 셧다운 등 여러 리스크를 줄이고자 여러 공급처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테슬라가) 입찰에 있어 가격 협상력, 제품력, 개파(생산 능력), 수출 등의 요인과 함께 자율주행차량의 시장 성장을 고려해 공급처를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태우 기자 burning@

中, 올림픽前 정유설비가동 축소 공급 줄어 국내 정유사들 반사이익

공장 절반 이상이 70% 미만 ‘뚝’ 석유제품 순수출 감소 추세 심화

“수급 불균형에 中 수입량 늘려 정제마진 강제 실적 호조 기대”

내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이 정유 설비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이로 인해 석유제품 공급 감소로 이어지면 정제마진이 강제로 정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제마진은 판매가격에서 원유가격과 운영비 등을 뺀 금액으로 정유사 수익성 지표다.

19일 글로벌 에너지 정보분석기업 S&P글로벌플래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산동성 독립 정유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가동률 하향 통지를 받았다. 대략적인 지침은 현재 처리량의 30%를 줄이거나, 최대

가동률을 70%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시는 이달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정유설비의 가동률을 낮추는 것은 ‘그린 스카이(Green Sky)’의 일환으로 추정되고 있다. Green Sky란 동계올림픽 기간 중 푸른 하늘을 만드는 것으로, 차량 이동이 많은 춘절 연휴를 앞두고 정유사에 생산량을 절감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산동성 지역정보업체 JLC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여내에 있는 43개 정유공장 중 22개 공장의 가동률이 70% 아래로 하락했다.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66.4%까지 저하된 상황이다.

윤재성·하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체 산동성 가동률을 70% 내외로 감안했을 때 향후 전체 가동률은 6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가동률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월 말부터 3월까지 등·경유 공

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정제마진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가동률 저하로 중국의 석유제품 순수출 감소 추세가 심화하고 있다. 가동률 조정이 시작된 지난달 중국 석유제품 순수출량은 4개월 이래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량이 줄면서 중국이 내수에 우선 공급을 할 테니 아시아 역내 시장에 들어오는 중국 석유제품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중국의 설비가동률이 낮아지면 시장에 공급이 줄어들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한국의 최대 석유제품 수출국인 만큼 국내 정유사들은 수출량 증가로 인한 반사이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제마진 강제 전망과 더불어 유가까지 상승하면서 정유업계에 호재가 겹치면서 올해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

이다솜 기자 citizen@



“태백노조 파업 중단하라”

협동조합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조합원들이 1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태백노조 총파업 규탄 및 파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플라스틱-석화업계 갈등 정부 나서 해결책 찾는다

산업부, 밸류체인 분석 착수
가격 결정·변화요인 등 조사

위주라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플라스틱 업계에서 석유화학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자 정부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오래도록 해묵은 갈등이 이번에 해소될지 주목된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내 플라스틱 산업의 전·후방 밸류체인을 분석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정유에서 석유화학, 플라스틱, 그리고 자동차, 전자 등 전방 산업에 이르는 산업 구조 각 단계에서 거래방식·구조, 거래 과정에서 가격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업종별 수익성 동향과 변화 요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 석유화학 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 등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플라스틱 업계 관계자는 “플라스틱 산업은 99.9%가 중소기업이고, 70% 이상이 납품거래를 하는 고용 집약적 중소기업형 산업”이라며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업체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대기업

이 과정에서 정확한 가격을 통보받지 못한 채 원료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 거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납품 후 원료가격이 오를 때 원료가격 인상분을 납품당기에 반영하지 못해 중소기업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것이 플라스틱 업계의 입장이다.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은 최근 석유화학-플라스틱 산업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3개월 전에 가격을 예시하고 1개월 전 가격을 고지 △공공구매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시점에는 석유화학사에서 만드는 합성수지 가격도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라며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석유사들이 공급하는 가격은 오히려 저렴한 편이다.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은 우리보다 50% 이상 비싸게 파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자동차, 전자 등 전방 산업과의 납품 단가를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석유화학 업체 관계자는 “정작 문제는 소비자 업체들이 플라스틱 제조사들로부터 납품받을 때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라며 “납품 단가에 제품의 가격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 바르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에너지저장장치〉

ESS 화재, 모니터링으로 사전 차단

전기차배터리 재사용에도 활용
빅데이터 기반 화재 위험성 감지

다 높은 용량과 성능을 요구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ESS 배터리로 재사용할 수 있다. 현재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ESS 배터리로 재사용하기 위해 산업계 곳곳에서 실증단계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재사용 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처럼 화재 논란에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본격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사용을 앞두고 ‘배터리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를 활용하면 최근 논란이 된 전기차 화재는 물론, ESS 화재까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연구개발에 나선 ‘배터리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향후 전기차 배터리의 ESS 재사용 때에도 관련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ESS 배터리에 적합한, 안전도가 뛰어난 배터리를 미리 골라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SS는 이미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하나의 축전지다. 전기차의 폐배터리가 ESS 배터리로

이 시스템은 전기차의 운행 패턴과 충전 과정에서 얻어낸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 위험군을 만들어 위험이 감지되면 곧바로 이를 경고하고 충전 때 과충전을 막을 수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시작했다.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국내 전기차 제조사 및 배터리 제작사 등과 데이터를 공유할 계획이다. 화재 예방이라는 국민 안전개념을 넘어 산업계의 연구개발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Dexcom G6

고혈당을 실시간으로, 저혈당을 사전에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시스템 덱스콤 G6

- ✓ 고혈당, 저혈당 알림과 경고!
- ✓ 손가락채혈(BG)을 통한 보정이 필수적이지 않음
- ✓ 혈당값을 5분마다, 하루 288번 스마트장치로 전송
- ✓ 최대 5명까지 연속 당수치 공유 가능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실구매가 100% 지원

개인용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24개월 이상의 당뇨병 환자의 피부 표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세포 간질액에서 측정된 포도당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포도당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로 자가감사용으로 집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내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농도 측정 결과 수집을 위해 사용한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010-18-0031 (유효기간 24.11.12)

N 덱스콤 G6

보안기업 'IPO' 준비... "클라우드·AI 신사업 확장"

물리·정보보안 강점 SK윌더스
상반기 상장, 기업가치 4조 전망
한씩·시큐레터 등 하반기 상장
재택근무 등 늘면서 보안 부각
"자금 확보해 미래 먹거리 투자"

보안기업 상장

SK윌더스	1/5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접수
한씩	• 지난해 KB증권 주관사 선정 • 올 하반기 상장 목표
시큐레터	• 12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접수 • 기술특례 상장 예정
센스랩 (전 세인시큐리티)	케이스인 자회사, 올 상반기 내 상장 예비심사청구 예정, 기술특례 준비 중
틸론	키움증권 주관사 선정, 올해 상장 준비 예정

국내 보안기업들이 올해 일제히 기업공개(IPO) 준비에 나섰다. 늦어도 올해 말까지 IPO를 완료해 신사업을 넓히고 사업영역을 확장한다는 목표다.

19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 자회사인 SK윌더스 등 보안 업체들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IPO를 추진하고 있다. SK윌더스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하며 올해 IPO 스타트를 끊었다. SK윌더스는 2020년 ADT캡스와 SK인포섹이 합병하면서 탄생

한 종합보안전문기업이다. 대규모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을 합쳤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는 4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장예비심사가 종료되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IPO 일정을 밝힌다. 일반적인 상장 절차를 따르게 되면 상반기 중 상장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윌더스 관계자는 "승인이 제대로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 융합보안 기업 한씩은 지난해 KB증권을 코스닥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IPO(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한씩은 지난 1992년 설립된 망연계 솔루션 전문업체다. 설립 초기 통신사 고객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빌링 시스템 기술을 선도해 왔으며, 망연계를 시작으로 패스워드관리, 보안전자팩스, 정보보안포털 등 정보보안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사명을 한씩시스템에서 '한씩'으로 변경했다. 시스템통합(SI) 사업과 솔루션 유통, IT 서비스 등 신규 영역도 확장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IPO를 통해 미래 신사업 발굴을 위한 M&A와 자본 투자도 병행하며 회사를 키워 나갈 전략이다.

한씩은 공공기관과 금융권, 기업, 국방 등 800여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지난 5년

간 연평균 25%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액은 2019년 121억 원에서 2020년 156억 원으로 29%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 정도 상승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씩 관계자는 "향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보안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신제품을 개발해 디지털 뉴딜 사업 다각화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SaaS 기반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하는 등 클라우드 시장 진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시큐레터는 대신증권에 주관사로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기술특례 방식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센스랩은 올 상반기 내 상장예비심사청구를 앞두고 있으며, 키움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한 틸론 역시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안 업계에서는 잇따라 기업들이 IPO

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이버 보안 관심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재택근무, 온라인 화상 회의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온라인 작업이 증가하면서 보안 이슈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보안 인식도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함께 진행한 '2021년 하반기 사이버위기에 대응 모의훈련'에는 285개 기업, 임직원 9만3257명이 참가해 전년 대비 기업 약 3.5배, 인원 2.1배 증가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신사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보안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브랜드 인지도도 높일 수 있는 만큼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atio@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 아닙니다"

신청 사이트 잇단 오류... 자영업자 불만 속출

인증 후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본인확인 절차만 수십 번 반복
중기부 "접속자 몰려 일시 오류"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신청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이트에서 잇단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에 따르면 5부제로 진행되는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해 신청조차 못 했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신청하지 못한 자영업자 대다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대상확인 및 본인인증'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거나 인증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로데오거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 모 사장은 이번 선지급 대상자 관련 문자를 확인 후 사이트에서 신청을 진행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만 봤다. 그는 이후 계속 대상조회를

클락하니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입니다.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창을 확인했다. 이후 본인인증을 진행했지만 다음 신청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았다. 결국, 대상자 확인 후 본인확인 절차만 수십 번을 반복한 것이다.

이 모 사장처럼 불만을 표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적지 않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선 그동안 손실보상을 받았지만 이번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항의성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작년 3분기 손실보상을 받았는데 이번 선지급 대상자 기준에 충족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며 "고객센터 연락도 닿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전 한때 사이트 접속자 수가 트래픽 기준보다 많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니라는 오류에 대해선 국세청의 DB(데이터베이스)를 넘겨 받는 과정에서 전

화번호가 오기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첫날이라서 5부제를 확인하지 못하고 대상자가 아닌 다수가 몰려 사이트에 잠시 오류가 있었다"며 "오후 3시 기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자료를 중기부의 DB와 매칭하는 과정을 새롭게 진행했다"며 "내일부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이번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 5부제로 진행된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가 기준이다.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조병환(가운데) 소진공 이사장이 윤리·청렴 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소통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부패방지 평가' 2등급

'온누리상품권 폐기' 우수사례
'반부패 청렴 우수기관 도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평가다. 2021년 총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소진공은 공직유관단체Ⅲ유형 그룹에서 평가를 받았으며, 전년도 등급보다 1등급이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 취득 종합점수의 경우, 동일 그룹, 같은 등급 군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점수를 웃도는 수준의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진공은 반부패 노력의 하나로 2021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취득했다. 또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유산, 부패취약분야 청렴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소진공은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운영 및 폐기 방식을 변경했다. 유가증권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부분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조병환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 전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반부패·청렴문화를 이끄는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한파·규제에 이용자 급감... 공유킥 '힘겨운 겨울나기'

대수 줄이고 서비스 지역 바꿔
개인·기업형 렌탈 서비스 출시

지속되는 한파와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한 킥보드 업계가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면허 의무화와 견인 조치 시행 이후 이용률이 급감한 가운데, 설상가상 추운 날씨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19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이에이(IGI)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공유킥보드 업체 7곳(△자쿠터 △쌍쌍 △키고잉 △라이프 △비비 △알파카 △디어)의 MAU(월간 활성 이용자수)는 지난해 4월 이후 지속 하락해 12월 109만 명으로 줄었다. 4월 190만 명과 비교해 42% 감소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눈 오는 날이 많아지며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7개 업체의 1월 DAU(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눈이 내리는 날이면, 전날보다 14~17%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유 킥보드 운영사는 운영 대수를 줄이고 운행 지역을 바꾸는 등 각종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이프'(Life)은 이번 겨울 킥보드 운영 숫자를 기존 3만 대에서 1만5000여 대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운행을 중단한 기기는 봄철 재 운행을 위해 점검하는 등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뉴런모빌리티는 지난달 21일부터 아예 운영을 중단해 봄에 재개할 계획이다. 류기욱 뉴런모빌리티 실장은 "겨울철에는 이용자가 적은 탓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 운행을 중단했다"며 "재개 시기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으나, 일단 봄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릭은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운행 지역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날씨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온화해 전동 킥보드 이용 수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동영 하이릭 이사는 "대전 이남 지역으로 운행 킥보드를 모두 옮겼고, 이달 말 개인형·기업형 렌탈 모델 서비스도 출시하는 등 여러 경영상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킥보드 업체는 헬멧 착용 의무화를 권고 수준으로 바꾸는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1월 헬멧 착용 의무 조항을 삭제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

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다만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올해 1월 서울시의 모호한 견인 규정은 구체화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나 이용자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구제 절차도 밟을 수 있게 됐다.

업계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퍼스널모빌리티협의회(SPMA)를 벗어나 새로운 협의 조직을 추진하고 있다. 정구성 자바이크 전략 이사는 "제대로 된 협찬만 만들어 보자고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조만간 업체 별 다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nglass@



콜센터 1위 '유베이스' 업계 첫 상담직 공채

국내 1위 콜센터 아웃소싱 기업 유베이스가 업계 최초로 상담사 직군을 공개 채용한다. 유베이스는 이를 통해 상담사 직무 이미지 개선하고 인재를 양성해 차별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유베이스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상담사 직군 약 200여 명을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채 1기 채용의 지원자격은 사회초년생부터 경력자까지 제한이 없다. 고객 상담을 시작으로 관리 자까지 성장을 목표로 한다며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유베이스는 공채 상담사들의 고용 안정성과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는 신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기존 상담사 기본급보다 더 높은 연봉체계가 적용되며, 교육 기간 동안 정규직 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향된 급여 보장이 상담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상담사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공채 선발을 통해 입사한 상담 직원들은 약 3개월간 사내 교육(OJT)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상담 직무의 비전을 비롯해 업무 적응을 위한 기본 응대 프로세스 및 고객 상담 기술 교육을 받는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브랜드 콜라·사이다>

새해에도 '밀리언셀러 먹거리' 쏟아진다



<포테킹 후라이드>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먹거리 브랜드가 늘고 있다.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집밥과 배달, 테이크아웃이 늘자 밀리언셀러 먹거리를 키우는 밀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노브랜드 버거가 선보인 '브랜드 콜라'와 '브랜드 사이다'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출시한 노브랜드 버거의 '브랜드 콜라'와 '브랜드 사이다'는 일 평균 3만 개가량 판매되며 단기간에 밀리언셀러도 등극했다. '브랜드 콜라'와 '브랜드 사이다'는 독특한 네이밍과 노브랜드 버거 메뉴와 잘 어울리는 점을 앞세워

MZ세대에 호응을 얻었다. 신세계푸드는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브랜드 콜라'와 '브랜드 사이다'의 감각적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굿즈를 추가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SPC삼립이 지난해 8월 출시한 이색적인 호떡 '콰트로 치즈 브레드'도 100만 개 고지를 밟았다. '콰트로 치즈 브레드'는 '크라프트 하인즈(Kraft Heinz)'의 크림 치즈 4가지(모짜렐라, 체다치즈, 고다치즈, 고르곤졸라)를 사용해 특유의 고소한 치즈 풍미가 극대화된 제품이다.

bhc치킨의 '포테킹 후라이드'도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50만 개를 돌파했다. '포테킹 후라이드'는 육즙이 가득한 치

노브랜드 버거 '콜라·사이다' 출시 한달만에 100만개 돌파
bhc '포테킹' 250만개 판매
해태 '얼초' 스테디셀러 등극

킨에 튀김옷을 입히고 얇게 썬 국내산 감자를 고루 묻혀 튀겨낸 신개념 후라이드 메뉴다. 바삭한 치킨과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감자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는 장점에 힘입어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bhc치킨은 지난해 6월 '포테킹 콤보', '하바네로 포테킹 후라

이드' 2종을 동시에 출시, '포테킹 후라이드'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한국맥도날드가 연말연시 한정 메뉴로 선보인 '행운버거'도 출시 2주만에 판매량 100만 개를 넘어섰다. 행운버거는 새해 행운을 기원하고 따뜻한 나눔 활동에도 동참할 수 있는 맥도날드의 대표적인 연말연시 한정 메뉴다.

밀리언셀러 자리가 일찌감치 예고되는 제품도 있다.

굽네의 불금치킨은 출시 약 3주 만에 20만 개가 팔려나갔고 한솔의 '김치 부대찌개'와 '김치 부대찌개 정식' 4종은 출시 보름만에 판매량 20만 개를 돌파했다.

밀리언셀러를 넘어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사례도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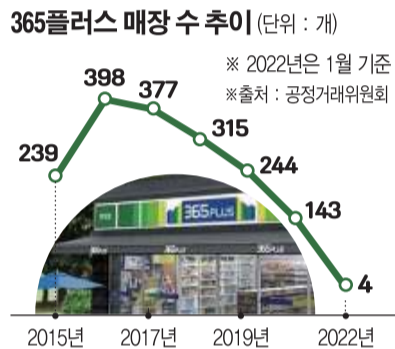
해태제과의 원조 DIY 놀이형 과자 '얼초'는 출시 20년만에 7000만개 판매고를 기록하며 단일 제품으로만 매출 100억 원의 신화를 썼다.

CU의 대표 냉장간편식인 자이언트 시리즈 역시 론칭 7년여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 개를 돌파했다. 자이언트 시리즈는 자이언트 떡볶이, 쫄볶이, 빨간순대 등 분식메뉴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예전보다 길거리 음식이 꺼려지자 자이언트 시리즈의 성장에 속도가 붙었다. 자이언트 시리즈는 2020년 15.6%, 2021년 21%의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홈플러스, 사실상 편의점 사업 접는다

'365플러스' 4곳만 영업
기존 편의점과 차별화 실패
"마트·SSM 리뉴얼에 집중"



홈플러스가 편의점 사업을 사실상 정리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홈플러스는 남아있는 점포가 4개에 불과한 만큼 기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는 현재 4개뿐인 편의점 '365플러스' 매장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점주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홈플러스 편의점 사업은 자연스럽게 철수 절차를 밟게 된다. 이미 홈플러스 매장찾기 홈페이지에는 365플러스 소개란이 지워져 있다.

홈플러스에 편의점 사업은 한때 미래 먹거리였다.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다. 2012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3년 도성환 당시 홈플러스 사장은 "향후 10년 내 편의점을 5000개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사업 4년 후인 2016년에는 365플러스 매장 수가 398개까지 늘었다. 2017

년에는 편의점 바이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인 임일순 전 사장이 부임하면서 편의점 사업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홈플러스가 편의점 사업을 정리하는 이유는 기존 사업의 부진 여파가 크다. 홈플러스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홈플러스 영업이익은 933억 원으로 전년(1602억 원) 대비 약 42% 줄었다. 매출도 약 5% 감소한 6조9662억 원에 머물렀다.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홈플러스는 다른 경쟁사들과 달리 출점 경쟁에 뛰어들 수 없다.

차별화 전략에 실패한 점포 사업 축소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GS25, CU 등 기존 편의점들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고자 차별화된 상품을 잇달아 선보였

다. 이들과 달리 365플러스는 가격 경쟁력을 주로 앞세웠다.

여기에도 매출로 나온 미니스톱을 세븐일레븐을 보유한 롯데가 인수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편의점 시장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가 투자가 어려운 홈플러스로서는 사업 정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SSM 리뉴얼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17개의 대형마트 점포를 리뉴얼하고 소비 패턴에 맞춰 식품 중심 매장으로 탈바꿈한다.

일부 점포는 고객 유치를 위해 최대 200평 규모의 대형 체험형 공간을 조성한다. 대표적으로 홈플러스 인천 논현점은 지하 2층에 어린이 수영장인 '엔젤쿠 키즈 스위트'를 열었다.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신선·간편식 전문 매장을 23개 추가로 늘린다. 리뉴얼이 이미 완료된 점포(159개)를 포함하면 신선·간편식 전문 매장은 182개로 늘어난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온·오프라인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유통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비싸진 한 술 편의점 '비비고 죽' 15% 인상

동원F&B에 이어 CJ제일제당도 편의점 죽 가격을 올린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내달 1일부터 자사 용기 죽 제품의 편의점 납품가를 평균 15% 인상한다고 밝혔다. 비비고 소고기죽, 전복죽 등 280g 제품 10종의 편의점 권장 소비자가격이 기존 3900원에서 4500원으로 비싸진다.

이번 인상은 2018년 비비고 죽을 내놓은 이후 첫 가격 인상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라면서 "다만 편의점 용기 죽에 한해서만 인상을 단행하며, 파우치 죽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앞서 동원F&B도 이달부터 자사 용기 죽 제품 12종의 편의점 공급가를 평균 15% 인상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유통가, 새로 뽑은 '방역패스 인력' 활용 고민

전담 직원 채용·태블릿PC 구입 의무화 일주일만에 '해제' 혼란

많은 논란 속에 시작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PCR 음성 확인) 의무화가 일주일 만에 '해제'로 뒤집어지며 유통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유통업계는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에 필요한 인력을 신규로 채용했다가 당장은 명절을 앞두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방역패스 정책의 향방이 불확실해 이들 인력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방역패스 시행에 맞춰 인력을 기존보다 최대 5배나 채용하고 QR코드 인증을 위한 태블릿PC 등을 상당수 구입한 마트나 백화점들은 당장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확실한 인력 활용 문제 등으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 백화점의 경우 발열 체크 등 방역 관리를 위해 기존에 투입된 필수 인력 200명

을 제외하고 추가로 300여 명을 단기채용했다. 방역패스 시행으로 직원들이 직접 방문자 개별의 백신 접종 여부 확인 과정을 위해 전담 인력과 설비가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형 마트들도 최소 수십~수백 명의 인원을 늘렸다. 하지만 백신패스가 멈춰서며 당장 이들 인력의 활용도 골치거리다. 다행스러운 점은 명절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매장에 필요인력이 늘었다는 점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점포 내 다른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치했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점포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고 난 후 이들 인력 상당 수는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방역패스가 부활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실제로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안을 내놓으면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이 항구적 조치가 아니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이마트는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판매 기간 행사카드로 결제 시 최대 40% 할인 혜택과 신세계상품권 최대 50만 원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한다. 최근 고가 선물세트 수요가 높아진 트렌드를 반영해 이마트는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내세운다. 사진제공 이마트

"프리미엄 늘리고 최대 40% 할인" 이마트·롯데마트 설 선물 본판매

이마트, 한우·굴비 물량 확대
롯데마트, 주류 선물세트 보강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설 선물세트 본 판매 기간 다양한 프리미엄 상품들을 선보인다.

이마트는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13일간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 판매 기간 행사카드로 결제 시 최대 40% 할인 혜택과 신세계상품권 최대 50만 원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준비한다.

사전예약 기간(2021년 12월 16일~1월 17일) 동안 이마트의 선물세트 전체 매출은 전년 설 대비 7% 늘어났다. 특히 10만 원 이상 선물세트 매출은 30% 신장했다.

고가 선물세트 수요가 높아진 트렌드를 반영해 이마트는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내세운다. 대표적으로 한우 선물세트에서는 10만~2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를 중심으로 냉장한우 세트 물량을 10% 늘렸다. 구이용 부위가 포함된 주요 냉장한우 세트는 행사카드 결제 시 10% 할인한다.

수산 선물세트의 경우 가족 먹거리 대표 세트인 제주 시리즈 3종 물량을 20% 늘렸다. 제주 은갈치 세트(갈치 1.3kg) 등은 행사카드 결제 시 20% 할인해 11만~13만 원대에 판매한다. 전통 수산물 굴비 선물 세트는 15만 원 이상 선물세트 물량을 작년 설 대비 30% 늘렸다.

과일 선물세트에서는 트렌드 상품인 샤인머스켓 혼합 세트를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30% 할인, 샤인&애플망고 세트(샤인머스켓 800g/1송이, 애플망고 1.6kg/4

입)를 6만6500원에 판매한다. 와인 선물세트 대표 주자로는 프랑스 메독 1등급 컬렉션 5대 샴 5종을 각각 12병 한정으로 99만~148만 원에 선보인다.

SSG닷컴도 같은 기간 설 선물세트 본매장을 열고 판매에 나선다. 사전예약 판매 추이를 분석해 고객 선호도가 높았던 20만 원대 이상 프리미엄 세트를 강화하는 한편 신선·가공식품 내 인기 품목 위주로 구성했다.

롯데마트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판매에 나선다. 판매 기간 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을 약 20%가량, 10~20만 원대 선물세트 물량도 약 10%가량 확대했다.

대표 프리미엄 상품으로 지리산에서 자라 최상위 무항생제 인증을 거친 '무항생제 지리산순수한 한우 1++ 납마나인(No. 9) 세트 1호(3kg)'를 69만 원에 100세트 한정수량 판매한다. 수산 세트로는 대한민국 우수산지 지역농가 협업 프로젝트의 '산지특심 제주 은갈치 세트'(4마리, 1.8kg 내외)를 엘포인트(L.POINT) 회원 대상 12만6400원에 선보인다.

주류 상품도 보강했다. 대표 상품으로 '발렌타인 싱글몰트 15년 글렌버거·밀턴 더프(700ml)'는 각각 10만9900원, 10만900원에 판매한다.

롯데슈퍼는 이날부터 전 점포에 설 선물세트 본 판매에 들어간다. 특히 고당도 프리미엄 과일 브랜드 리얼허니의 과일 선물세트와 3~5만 원대의 가성비 높은 실속형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청소년들을 지키는 선한영양력 지금 전하러 갑니다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소년그루터기재단
같이도시락 지원사업



“
청소년을
청소년답게


하나금융그룹
같이도시락

성장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SK바이오팜 “차세대 신약 발굴...글로벌 제약사 도약”

SK주의 신약 개발 기업 SK바이오팜이 글로벌 종합 제약사로 도약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자력으로 미국 시장을 뚫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순항에 힘입어 이를 이을 차세대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SK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7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5월 미국에 출시된 세노바메이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여파에도 처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199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4분기에는 규모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파트너사 안젤리니 파마가 ‘온투즈리’란 이름으로 지난해 6월 독일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뇌전증 시장인 영국에 출시돼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안젤리니파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과 유럽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차례로 온투즈리를 출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경쟁 약물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작년 말 7억 출시...매출 기대감

‘카리스바메이트’는 글로벌 3상 신경계 질환·CNS·항암제 등 파이프라인 확대 나서며 도전

‘빔팻’은 올해 3월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올해는 신제품인 세노바메이트가 세력을 확장할 기회를 엿볼 수 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을 넘어 세노바메이트의 기술수출 지역을 추가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세노바메이트에 이어 상임화 가시권에 들어온 파이프라인은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치료제 ‘카리스바메이트’이다. 지난 6일 글로벌 임상 3상을 개시했다.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는 희귀 난치성 뇌전증으로 완치법이 없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미충족 수요가 높다. 환자 수는 전 세계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SK바이오팜은 2017년 미국 식품의약



SK바이오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적응증	개발 현황
세노바메이트	뇌전증	미국·유럽 판매
솔리암페들	수면장애	미국·유럽 판매
카리스바메이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미국 임상 3상 진입
렐레노프라이드	희귀 신경계 질환	유럽 임상 2상 준비
SKL13865	집중력 장애	미국 임상 1상 완료
SKL20540	조현병	한국 임상 1상 완료
SKL27969	뇌종양·뇌전이상	미국 임상 1상 진입
SKL24741	뇌전증	미국 임상 1상
SKL-PSY	조울증	중국 임상 1상 준비

국(FDA) 희귀의약품에 지정된 이 약이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과 유럽, 아시아 전 지역에서 직접 판매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2025년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도 희귀 신경계 질환(렐레노프라이드), 집중력 장애(SKL13865), 조현병(SKL20540), 조울증(SKL-PSY) 등 중추신경계(CNS) 관련 파이프라인을 다수 개발 중이다.

특히 올해 주목할 대목은 글로벌 종합 제약사란 목표를 향한 SK바이오팜의 도전이 궤도에 올랐던 점이다. 기존에 보유한 CNS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면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13일 표적항암 약

신신약 ‘SKL27969’의 미국 임상 1상 진입 소식을 알리면서 CNS 질환에서 항암제로 파이프라인 다변화를 본격화했다. SKL27969는 암세포의 증식 및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일종인 PRMT5(Protein Arginine Methyltransferase 5)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이다. PRMT5는 과발현 시 발암 및 치료 저항에 영향을 미친다.

전임상 시험에서 경쟁 약물 대비 긴 반감기, 높은 뇌 투과율 등 우수한 효능을 보인 SKL27969는 뇌종양 및 뇌전이암의 계열 내 최고 신약(Best-in-class)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SK바이오팜이 30년에 걸친 뇌질환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쌓은 뇌혈관 장벽 투과 약물 개발 역량이 투입된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은 2025년 2730억 달러(약 3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의약품 최대 시장이다. SK바이오팜이 항암제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한 배경에도 높은 시장성이 자리하고 있다.

합성신약을 넘어 마이크로리보핵산(miRNA) 기술을 접목한 신약 개발도 나섰다. miRNA는 유전자 발현 및 단백질 생성을 조절하는 RNA의 일종이다. 다양한 질환을 진단·치료할 수 있고, 난치성 질환 의약품 및 맞춤형 혁신 의약품 개발 가능성을 가진 물질로 최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SK바이오팜은 RNA(리보핵산) 기반 뇌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 바이오오케스트라와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맺고, 뇌전증 질환에서 miRNA를 타겟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 예정이다. 바이오오케스트라가 자체 개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물질을 선별·합성하면 SK바이오팜이 효능 검증 등 전임상 시험을 맡게 된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R&D 영역을 CNS 분야에서 항암으로 확대하고, 유망한 기술을 갖춘 국내외 기업들과 협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우세종’ 임박한 오미크론... 3차접종은 ‘지지부진’

지난주 오미크론 검출률 27% 직전주 12.5%서 두 배 ‘경증’ 부스터샷 접종률은 47% 그쳐 1·2차 접종률의 절반 수준

이번 주말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제치고 코로나 감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스터샷 접종자가 한달 새 반토막으로 줄어들어 방역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전국의 지난주(9~15일) 오미크론 검출률은 26.7%로 집계됐다. 직전주 12.5%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 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5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건 지난해 12월 30일(5037명) 이후 20일 만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제치고 감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시기를 이르면 이번 주말로 보고 있다. 이미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에서는 지난 8~14일 변이 감염 사례 중 오미크론이 80%되며 우세종이 됐다. 지역 간 이동이 급증하는 설 연휴를 거쳐 3월까지는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에 달한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백신 3차 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오미크론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접종에 따른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보지만 3차 접종의 경우 일정기간 70~80%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오

일시	3차 접종자수	전주대비
2021년 11월 22일~12월 5일	110만5096명	6.4%
12월 7~12일	240만3712명	117.5%
12월 13~19일	520만6216명	116.6%
12월 20~26일	365만9705명	-29.7%
12월 27일~2022년 1월 2일	325만8577명	-11.0%
1월 3~9일	253만3012명	-22.3%
1월10~16일	231만7557명	-8.5%

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선 3차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고 접종을 빨리 받을수록 방어력이 충분히 생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더지는 접종 속도가 문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3차 접종자는 2400만4665명으로 전체 인구의 47% 수준이다. 1차와 2차 접종률 86.8%와 85.0%와 비교해 격차가 크다. 작년 12월 3주 차(2021년 12월 13~19일)만 해도 3차 접종자는 520만 명에 달했지만, 1월 첫째 주 들어서 326만 명으로 추중했다. 최근 일주일(1월10~16일) 부스터샷 접종자 수는 232만 명으로 전주보다 8.5% 내리며 한달 새 반토막났다.

3차 접종의 낮은 접종률은 부작용 우려가 높아진 데다 오미크론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된 이유가 크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평소 건강했던 60대 남성이 3차 접종(부스터샷) 이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에 오미크론이 높은 전파력에 비해 증세가 가볍다는 사실이 부각된 점도 접종률 상상을 더디게 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위중증률은 0.6% 정도로 추정된다.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킬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최근 국내 상륙도 이유로 꼽

힌다. 국내 팍스로비드 첫 복용 환자인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최 모씨(74)는 이틀도 안 돼 증세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광질광 정부의 방역패스 혼선도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의 방역패스 강화와 독서실, 스타벅스 카페를 방역패스의 무작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고 정부의 바람대로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인 180일까지 최대한 접종을 미루는 이들도 늘고 있다. 수원에 사는 40대 김 모씨는 “부작용 문제도 아직 확실한 게 없고, 대부분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다는 말도 있고 해서 중학생 아들의 3차 접종을 6개월까지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여러 보고를 볼 때 오미크론은 중증도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질병 위험과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과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접종을 강요하면 안된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씨젠, 1시간이면 코로나 진단 ‘올플렉스’ 출시

씨젠은 전체 코로나19 검사 시간을 3분의1로 단축한 새로운 진단시약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씨젠의 진단시약 올플렉스(Allplex SARS-CoV-2 fast PCR Assay)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판별하는 유전자 3종(E, RdRP, N gene)을 타겟, 변이 발생 종류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정확히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씨젠 관계자는 “신제품이 검사장비 추가 없이도 현재보다 검사 수량을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어 신속한 대량 검사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씨젠은 자체 개발한 효소를 처음으로 적용해 PCR에 소요되는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또한 핵산 추출 과정

없이 바로 PCR이 진행되도록 제품을 설계해 전체 검사 시간을 1/3로 대폭 단축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일상적인 대규모 검사가 진행 중인 의료현장의 업무부담이 감소하고,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체 개발 효소는 앞으로 다른 제품에도 적용해 검사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씨젠은 7개국, 17개 기관에서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검사에서 경쟁사의 유사한 제품들과 비교해 동등한 수준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후 씨젠 글로벌비즈니스총괄 사장은 “앞으로 전 세계 60여개국을 대상으로 대량 검사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메드팩토, 대장암 치료 신약 글로벌 3상 순항

美FDA와 임상승인 사전미팅

메드팩토가 글로벌 제약사 MSD와 진행하는 대장암 관련 글로벌 임상 3상 준비가 순항 중이다.

메드팩토는 19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대장암 환자 대상 백토서티프 병용요법의 글로벌 임상 2b/3상을 위한 pre-IND 미팅(임상승인계획 사전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상승인계획 사전미팅은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FDA 담당자로부터 IND 신청 전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 메드팩토는 지난해 4분기 미 FDA에 임상승인계획 사전미팅을 신청한 바 있다.

임상승인계획 사전미팅이 순조롭게 진행된 만큼 2b/3상 IND 신청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메드팩토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 FDA에 글로벌 임상 2b/3상 IND를 신청한다

는 계획이다.

메드팩토는 MSD와 현미부수체안정형 전이성 또는 국소진행성 대장암(MSS-mCRC) 환자들에 대한 3차치료제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메드팩토의 TGF-β 저해제인 백토서티프와 MSD의 항PD-1 요법인 키트루다(성분명 펌블리주맙)의 병용 요법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메드팩토는 지난해 6월 열린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회의에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병용요법 임상 1b/2a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간 결과에서는 백토서티프 병용요법시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이 15.8개월로 현재 표준요법들보다 2배 이상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 치료대안으로써 가능성을 입증했다.

메드팩토 관계자 “임상승인계획 사전미팅이 순조롭게 진행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FDA에 글로벌 3상 IND 신청은 물론 IND 승인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공공재개발 첫삽 뜨기도 전에 삐끗...토지주 80% 반대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비대위 “인원수 적어 강제 수용
타지역 힘 합쳐 위헌 청구 예정”
SH “법적 문제 없어 사업 강행”**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 더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숫자만 많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면 실제로 80%가량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린다. 이는 400여 명 자영업자의 생계 타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의 공공재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간 담보 상태에 놓여있던 흑석2구역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1호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비업체에 따르면 이 지역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로 구성된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는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공공재개발 반대를 위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조흥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순진한 주민을 기만하는 사업설명으로 동의서를 얻었고 급기야 도심에서 무자비한 수용 절차를 공공재개발이라는 허울로 둔갑시켰다”며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동작구정장을 상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처분 취소’와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인가 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집행정지 이유로 △공공재개발 진척의 위법성 △주택조합의 동이자 수산정의 위법 △주택조합의 동이서 징구 절차의 위법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위법-추진위 동의서의 무단 전용 △보전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흑석 2구역은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특별지정된 지역이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비대위 측은 흑석2구역의 경우 80%가량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보다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보다 인원수에서 적어

공공재개발을 강제 수용당했다고 주장한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의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들과 힘을 합쳐 행정소송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흑석2구역을 비롯한 금호23구역·신설1구역·홍제동3080구역·강북5구역 등 각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가 소유주들의 목소리가 거세게 들린다. 상가 주인들은 월세를 꼬박꼬박 받길 원하고, 임차인 상인들은 생업의 타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SH공사는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SH공사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공공재개발 사업 강행의 뜻을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동작구정을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상가주들과 세입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되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지난해 공공재개발 1호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전경. 뉴스

청약 경쟁률 450대 1 레지던스 시장...한 달 만에 “급매합니다”

‘틈새시장’ 급냉 분양가 이하 호가

주요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 경쟁률

단지명	경쟁률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 (부산 해운대구 우동)	455.4대 1
롯데캐슬 르웨스트 (서울 강서구 마곡동)	657대 1

생활형 숙박시설 장점 및 단점

- 장점**
 - 1 아파트(주택법 적용)와 달리 건축법 적용
 - 2 청약통장 필요 없고, 전매 가능
 - 3 양도세, 취득세 증가 대상 아님
- 단점**
 - 1 숙박업 신고 필요
 - 2 주택사용 적발되면 강제이행금 부과
 - 3 취득세 4.6%로 아파트보다 높아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 전용면적 64㎡형 마피 1500만 원에 분양권 양도합니다.” “오션뷰 남동향 무피로 급매합니다.”

아파트 틈새시장으로 청약 광풍이 불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열기가 가라앉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거래도 줄고 있어서다. 급매로 웃돈(피)이 붙지 않은 ‘무피’나 심지어는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은 ‘마피’ 매물도 늘고 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들어선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다. 한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초피나 무피로 급하게 처분하겠다고

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시장 분위기가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생활형 숙박시설도 매수세가 줄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H공인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당점돼 분양권을 팔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무피로 내놓는 물건들도 많고, 1000만 원대 이상 피를 낫춘 매물들마저도 거래가 없다”고 전했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 분양권 거래 시장 분위기는 불과 한 달 전 청약 시장 분위기와 크게 대조적이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지난달 청약 접수 당시 전체 283실 모집에 10만8392명이 몰리면서 평

균 경쟁률이 455.4대 1에 달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는다. 이에 아파트와 달리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시장에서 장점으로 작용해 구매력을 자극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난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100% 추첨으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당점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거래도 주춤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권 거래시장

도 뜸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청약 접수 당시 전체 876실 모집에 57만5950건이 몰려 평균 657대 1을 기록했던 곳이다.

마곡동 M공인 관계자는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청약 직후에 피가 잘 형성됐는데 매수자들이 없어서 지금은 거래가 뜸하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서 마피나 무피가 뜨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생활형 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실거주도 안 되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임대 수익률이 저조해지면서 상품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하향 안정세? 재개발·재건축 단지 더 뜨겁다

**대선 주자들 사업 촉진 공약
압구정 현대 낙달만에 3억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면적 82㎡형은 지난해 8월 33억 원에 거래됐다. 이후 4개월 뒤인 지난달 28일 해당 아파트 같은 면적은 36억 원에 손바뀜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9단지’ 전용 71㎡형은 지난달 17일 16억1500만 원에 거래됐다. 직전 실거래가는 지난해 8월 15억8000만 원으로, 낙달 새 3500만 원 올랐다.

거침없이 오르던 집값이 지난해 말부터 점차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가운데 대선 공약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집값은 여전히 쿨대를 꺾지 않는 모습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 인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으로 언급된 지역의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곳들의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여야 대선후보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공약을 내걸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을 앞둔 송파구 잠실아파트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예전만 못하고, 거래가 없다고들 하지만 재건축 시장만큼은 호기가 남아가지 않고 견고하다”며 “대선 이후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매도 물건도 거의 안 나온다. 매물 자체가 없으니 매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GTX 연장과 노선 추가 신설 공약도 집값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27년 완공 예정인 GTX-A·B·C 라인 중 A·C노선을 평택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후보는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기 위해 GTX-D·E·F노선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지난해 10월 GTX-C노선을 경기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같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지역은 평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평택 아파트값은 1월 첫 주 0.04% 상승했고, 둘째 주는 전주 대비 0.10%p 상승해 상승률이 0.14%로 뛰었다.

상황이 이렇자 흥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대선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어렵게 형성된 집값 하향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2017년 대비)

대출 막혀도...경기 ‘15억 초과’ 매매 26배 급증

작년 1465건 ‘뜰뜰한 한채’ 선호

최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최근 4년 새 경기 지역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가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경기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7년 56건에서 2021년 1465건으로 2616.1% 늘었다.

거래량뿐 아니라 경기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단지도 대폭 증가했다. 2017년 경기 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단지는 13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1곳으로 15배 증가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됐지만, 오히려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지속해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기 아파트 실거래가가 15억 원을 넘긴 곳은 군포·남양주·부천·의왕시 등 4곳이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 ‘래미안 하이어스’ 전용면적 178㎡형은 지난해 8월 15억

경기 지역 15억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량 추이

연도	건수
2017년	56건
2018년	172건
2019년	330건
2020년	899건
2021년	1465건

자료=국토교통부

7000만 원에 거래되며 군포시에서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긴 아파트가 됐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중저가와 고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은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지만,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수요층 위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뜰뜰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데다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2019년부터 이미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더라도 영향이 적어 중저가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 lly0403@

法, '김건희 통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재판부 "공적 관심사에 해당
사생활 제외하고 공개 허용"

'공익성·언론의 자유' 최우선
사적 대화 판단하기 쉽지 않아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

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열린공감TV는 이날 재판부가 지정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김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이 기자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 45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자는 통화를 녹음했고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김 씨 측 대리인은 "이 기자는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를 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김 씨에게 접근했다"며 "이 기자가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과의 대화도 여과 없이 녹음한 것은 후보자 비방 외에 어떤 공익적 목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열린공감TV 측 대리인은 "전통 미디어들과 뉴미디어 간의 협업은 과거부터

존재했다"며 "서울의 소리가 열린공감TV와 공조해 취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공작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방송 전체에 대한 공개 금지를 신청하는 것인가"라며 "이는 보도 금지 내지 사전 검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씨 측 대리인은 "열린공감TV 측의 보도 내용을 제출해주면 신청을 구체화하겠다"고 답했고 열린공감TV 측 대리인은 "편성권에 관한 부분이라 그러할 수 없다"며 "보도의 요지는 주고 받은 기회를 드리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서

부지법은 14일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며 "그의 사회적 이슈·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허용 이유를 밝혔다.

방송 금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수사나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방송 금지 가처분에서 승소 경험이 많은 문종택 변호사는 "방송 금지 가처분 자체

가 인용되는 경우가 적다"며 "방송은 공익성이 있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변호사는 "김 씨와 이 기자의 대화는 완전한 공적 영역도 아니고 사적 대화의 성격도 섞여 있어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김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음성권이라는 개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변호사는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7시간 통화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어서 실익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구제기 기자 sunrise@



함박눈 내리는 출근길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시민 3명 중 1명 "따릉이" 타요

누적 이용 수 1억 달성 눈앞
시 공유정책 중 만족도 '최상'
올해 3000대 추가 도입 예정

서울 여의도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안소라(30) 씨. 그는 지난해 가을 일 주일에 두 번 이상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로 퇴근했다. 여의도 회사에서 구로구 오류동 집까지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리지만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었다. 평소에도 따릉이를 자주 이용한다는 안 씨는 "걸어가기 조금 멀고 차를 타기도 애매한 짧은 거리를 오갈 때 따릉이가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했다. 따릉이 누적 회원 수는 330만명을 돌파해 서울시민 3명 중 1명꼴로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따릉이 총 회원수는 51만 명 증가해 330만 명을 돌파했다.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는 전년 대비 140만 건 늘어 누적 592만 건을 달성했다.

7년간 누적 이용 건수는



9165만건으로, 연내 1억 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따릉이 이용이 크게 늘었다. 2019년 1907만 건이던 연간 이용 건수는 지난해 3205만 건으로 늘었다.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따릉이의 총 주행거리는 2억km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까지 주행거리는 2억5435만7441km에 달한다.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km이니 지구 6359바퀴에 해당한다.

이용량을 보면 주말대비 평일 이용량이 12% 더 많다. 평일엔 대역전수의 30.6%가 출퇴근 시간(8~10시, 18~20시)에 집중됐다. 주말엔 30.9%가 오후 시간대인 14~18시에 집중됐다.

2021년 서울시 공유정책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따릉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이 편리해서'와 '이용절차와 방법이 간편해서'를 꼽았다.

서울시는 올해 신규 자전거 3000대를 추가 도입해 따릉이를 총 4만3500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대역소는 2020년 2228곳에서 2021년 2600곳으로 372곳을 확충한 데 이어 올해 250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백호서울시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따릉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자전거이용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은평 기자 pepe@

단독가구 기초연금 이달부터 7500원 오른다

30만원→30만7500원 2.5% 인상
부부 동반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이달부터 단독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30만7500원으로 지난해보다 7500원 오른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30만 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오른다.

단,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 따라서 부부기준 연금기준액은 지난

해 48만 원, 올해 49만2000원(각각 24만6000원)이 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20만 원에서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2019년 소득 하위 20%에 한해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0년에는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수급자 전체에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다. 기본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에 대해선 일정 금액·비율이 공제된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말

하는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4.5%에 달했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로 5.6%포인트(P) 축소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65세 이상)의 평균소득 중위소득 50% 간 격차를 중위소득 50%로 나는 빈곤갭도 같은 기간 41.8%에서 32.0%로 9.8%P 내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檢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HDC 압수수색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9일 오전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본사 등 5곳이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 내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실, 하청업체 3곳, 콘크리트 업체 10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입건한 사건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아파트 1개 동 고층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나 나머지 5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세 모녀 살인'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는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행이고 잠적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살해과정이 무자비해 교화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다만, "1998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기 기자 sunrise@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의 형을 살면 가석방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무기징역 선고는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공판이 끝나고 유가족은 "사형이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선고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탄원서를 계속해서 넣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작년 3월 A 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제기 기자 sunrise@

학령인구 줄어... “20년 뒤 수도권·국립대만 남는다”

2040년 대입 수험생 18만명 ↓
2024~2031년 ‘마지막 기회’
지방대 상생 위해 정원 줄여야

학령인구 감소로 20년 후에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만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대학교육연구소의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정의당 정책연구)에 따르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2020년 46만4826명에서 2040년 28만3017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대학교육연구소 자료, 대학알리미 신입생 총원현황, 통계청 인구추계를 통해 추계한 결과다. 해당 기간 동안 18만1809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

원은 “역대 정부 구조조정 정책은 고등교육개혁 청사진 없이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땀질식 처방’으로 추진됐다”며 “정책 추진이 쉬운 국립대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사업과 무리하게 연계해 대학에 혼란을 야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매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처음으로 500만 명 미만을 기록할 전망이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2027년 초중고 학생 수 시범 추계’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487만5100명으로 추계됐다. 2021년(교육통계서비스 4월 1일 기준) 532만3075명보다 44만7975명 감소한 수치다.

특히 초등학교 감소폭이 눈에 띄게 컸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 중인 세종시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2021년 267만2340명에서 2026년 222만9860명으로 44만2480명 줄어든다. 2026년은 ‘황금돼지띠’라 불린 2007년생이 고교를 졸업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고교졸업생 역시 2025년 503만5148명보다 16만48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흑룡띠’로 불리는 2012년 출산율이

1.3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지만,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어 학령인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보고서는 2024~2031년 학령인구가 유지되는 시기를 ‘마지막 기회’로 봤다. 사실상 학령인구 감소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기라며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대학 정원 감축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전체 대학이 입학 정원 10%를 감축하면 수도권 및 지방의 신입생 총원율은 모두 개선된다.

또 방대한 규모의 ‘정원 외’ 모집을 ‘정원 내’ 모집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학년도 정원 외 입학자 수는 6만7000명으로 정원 내 입학자 수 43만2000명의 15.6%에 달한다.

연 연구원은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올 SKY 의약학 수시 합격자 22%, 영재·과학고 출신



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의약학계열 최초합격자 중 20% 이상이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398명이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재학교·과학고는 과학영재 육성을 위해 설립됐는데 취지와 다르게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이 높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단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과학 인재 양성 위해 설립 의약학 계열 진학은 부적절”

2022학년도 수시 의약학계열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영재학교 학생은 141명, 과학고 학생은 257명이었다.

‘서울과학고’는 2022학년도 수시에서 의약학계열로 지원한 학생이 49명으로 전국 8개 영재학교 중 가장 많았고, ‘세종과학고’는 51명으로 전국 20개 과학고 중 가장 많았다.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제주과학고’는 2022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수시 지원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13년부터 의대 진학 학생의 졸업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의약학계열의 2022학년도 수시 최초합격자 중 21.9%가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세대의 의예과는 최초합격자 98명 중 34명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으로 그 비율이 34.7%에 달했으며, 고려대 의예과는 52명, 서울대 의예과는 5명의 최초합격자가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이었다.

강 의원은 “영재학교·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이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전폭 지원하고 있는 학교”라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성인 10명 중 3명 학교·학원서 평생학습”

코로나에 9.3%p 줄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만 25~79세) 10명 중 3명이 학교, 대학(원),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만 25~79세 성인 9905명, 전국 4493개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기준일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다. 팬데믹 기간인 2020년 한 해 동안 평생학습 참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30.7%로 성인 10명 중 3명이 평생교육에 참여했다. 이는 전년도 40% 대비 9.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다만, 평생학습 참여자들의 학습 투자시간은 연평균 88시간으로 전년(76시간)보다 12시간 늘

었다.

평생교육 참여율 감소는 팬데믹 여파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 평생교육도 있지만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진행되는 대면수업도 많다”며 “팬데믹으로 대면수업이 위축되고 학습자·강사 수가 줄면서 평생교육 참여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 여파로 평생교육기관 수(1.1%), 프로그램 수(20%), 학습자 수(15.2%), 강사 수(12.7%)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2.0%)이 여성(29.5%)보다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율(34.7%)이 저소득층(150만 원 미만)보다 17.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40.3%)’이 가장 높았다. 손현경 기자 son89@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가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구독 문의 (02) 799-2680 광고 문의 (02) 799-6727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골프**®

최대 50yd 더 나가는 제3의 기술

지금까지는 세계 톱 프로만 누리던 2단계의 클럽 최적화
뱅골프의 진화된 3단계 최적화 기술로
아마추어 골퍼도 완벽하게 나에게 맞는 클럽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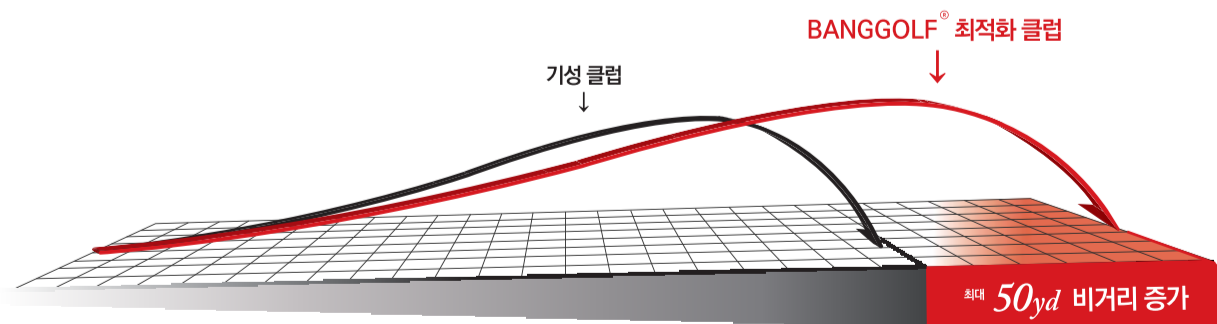
세계 어느 골프업체도 하지 못한
3단계 최적화 기술로
골프 클럽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모든 클럽 업체가 여자용은 단 1개의 스펙, 남자용은 6-9개의 스펙뿐이라서
모두 똑같은 스펙의 클럽을 사용하는 잘못된 공급과 구매를 반복해 왔습니다

뱅골프는 10,368,000개의 스펙을 보유하고
귀하에게 딱 맞는 사양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상위 0.1% VVIP 고객을 위한 골프클럽 최적화 서비스



골프 클럽 3大 기술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 + 3단계 최적화 기술



“단순 홍보는 가라” 딱딱한 건축에 뮤비를 입히다

DL그룹 유튜브 댄스팀 ‘끼부림 US’

예능 형식 신선한 홍보, 직원 3명 좌충우돌 이야기 담아 4개월간 춤 익히며 촬영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죠’

“이것은 예능인가, 홍보인가.”

DL그룹 유튜브 채널에는 ‘DL 끼부림 US’라는 독특한 재생목록이 있다. 총 6편의 영상에는 DL그룹 내 DL이앤씨와 DL건설 소속 사원 세 명이 직접 댄스팀을 꾸려 전국 곳곳의 회사 공장과 건축물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용만 들으면 자칫 딱딱한 기업 홍보 유튜브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내용은 홍보보다 예능에 가깝다.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예능 콘셉트에 레트로와 댄스를 더해 재미를 더했다. 신입사원과 입사 10년 차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원이 한 팀을 꾸려 합을 맞춰 나가는 과정을 예능처럼 풀어낸 점도 신선하다.

이투데이는 19일 끼부림 US에 출연한 DL이앤씨 진민재 토목사업본부 차장과 전병국 주택사업본부 차장, DL건설 강혜원 고객만족팀 차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올해로 직장생활 14년 차를 맞은 진 차

장은 “오랜 기간 해외 현장에서 근무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의 친구와 동료들과 떨어져 거리감이 느껴졌다”며 “이번 도전을 통해 나를 알리고 싶었고, 스스로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싶었다”며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강 차장은 “반복되는 업무가 계속되는 와중에 회사에서 기획한 새로운 방식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생겨 참여하게 됐다”며 “좋은 경험을 할 기회였고 촬영 기간 내내 박차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진 차장은 “촬영 당시 입사 2개월 차 새내기 신입사원 신분으로 참여했다”며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회사의 업무나 문화가 너무나 새롭고 좋아 프로젝트 참여도 흔쾌히 결정했다. 또 내가 댄스 동아리 출신인 만큼 자신도 있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끼부림 US팀은 팀 결성 이후 약 4개월간 주말과 업무 후 시간을 투자해 춤을 익히고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마쳤다.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진



DL그룹 유튜브 ‘끼부림 US’ 팀. (왼쪽부터) DL이앤씨 전병국 주택사업본부 차장, DL건설 강혜원 고객만족팀 차장, DL이앤씨 진민재 토목사업본부 차장.

차장은 “가족의 응원도 팀장·팀원의 지원이 없었다면 마무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진 차장은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마지막에는 끝내기 아쉬울 정도로 애정이 갔다. 특히 DL에너지 포천 복합화력발전소나 DL케미칼 여수C4공장을 촬영차 처음 방문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다”며 밝게 웃었다.

강 차장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2021년은 나와 팀원 모두에게 뜻깊은 한

해였다”며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DL그룹이 우직하고 정직한 회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차장은 올해 ‘제2의 끼부림 US’ 팀이 나오길 희망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는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내게 X세대의 추억을 다시금 느끼게 해줬다”며 “촬영을 시작한 첫날부터 인터뷰를 진행하는 지금까지도 영상을 보면 울컥하는 감동이 식지 않는다. 이런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제2, 제3의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정용욱 기자 dragon@

LS ‘구자은 체제’ 출범 첫 공식활동 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20억

LS그룹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20억 원을 19일 기탁했다. 올해 초 ‘구자은(사진) LS 회장 체제’ 출범 후 첫 공식활동이다.



LS는 200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LS의 기탁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의 분야에 활용된다. LS그룹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LS의 경영철학인 LS 파트너십의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태우 기자 burning@

예보, 첫 여성 상임 임원 탄생 이미영 인사지원부장 이사 임명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이미영 인사지원부장을 신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예보 설립 이후 최초의 여성 상임 임원이다.



이 신임 이사는 1996년 7월 입사해 25년 6개월간 재직하는 동안 정보시스템실장, 창조경영실장, 저축은행관리부장, 인사지원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IT 예보, 이미영 신임 상임이사 임명·최초 여성 상임 임원 탄생역량 강화, 부채 감축, 저축은행 부실 정리,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 구조조정 및 경영 혁신 등 성과 달성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도 신임 이사는 효율적인 지원자금 회수 및 대국민 IT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주식회사 ‘사소한 통화’ 이끌 CEO를 찾습니다

최태원 상의 회장,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간담...사업자 공모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최태원 회장이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의 대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4명의 출품자에게 상패를 증정하고 우수작을 사업으로 전환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증정식에는 대상을 거머쥔 ‘사소한 통화’의 이봉주 씨와 ‘코리아 게임’의 윤서영 양, ‘우리 동네 병원’의 김진현 씨, ‘폐업도 창업처럼’의 백명기 씨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아이디어 사업화하는 과정을 다뤄서 만들어 예정이며 상의는 아이디어 매칭할 사람들을 찾아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디어 단계를 통과했으니 챗봇지 단계를 넘어 사업화가 이뤄지면, 펀딩되고 회사도 설립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국가발전 프로젝트의 우수작 TOP 10을 살펴보고, 사업 계획(아이디어 구체화, 자금계획 등)을 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심사위원회는 국가발전기여도,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최고경영자(CEO)를 뽑는다.

사업화 공모 대상은 우수작 ‘10선+α’다. 치매 막는 10분 통화인 ‘사소한 통화’, 게임과 여행을 융합한 증강현실(AR) 보



최태원(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에서 아이디어 리그 TOP4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물찾기인 ‘코리아 게임’, 야간진료, 주말 진료 시스템인 ‘우리 동네 병원’, 눈물의 땀 처리를 막는 ‘폐업도 창업처럼’, 종자 유니콘을 길러낸 ‘코스씩’, 감정노동자의 비속어 필터링 서비스인 ‘내 귀에 캔디’ 등 상위 10개 입선작과 방송에서 다룬 추가 아

이디어 등이다. 기업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아이디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최고경영자를 뽑는다. 기한은 다음 달 18일까지이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아프간 영웅’ 한인 2세, 美 버지니아주 보훈부 부장관에

지뢰에 두 다리·두 손가락 잃은 제이슨 박 “참전용사 위해 봉사”

‘아프가니스탄의 영웅’으로 불리는 한인 2세 상이군인이 미국 버지니아주의 최고위직인 보훈·병무부 부장관(Deputy Secretary)에 올랐다.

18일 버지니아주 정부에 따르면 글렌 영킨 신임 버지니아 주지사는 최근 한인 2세 제이슨 박(박재선·32) 씨를 보훈·병무부 부장관에 임명했다.

박 부장관은 버지니아주 출신으로,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

다. 2012년 육군 보병 2사단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다. 당시 순찰 근무를 하던 중 탈레반이 설치한 급조폭발물(IED)이 터지면서 두 다리와 손가락 2개를 잃었다. 그는 자신보다 소대원들을 먼저 피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방 정부가 수여하는 상이군인 훈장인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다.

군 제대 후 보잉 워싱턴 지사에서 근무했고, ‘아프가니스탄의 영웅’이란 별칭과



오른쪽부터 미국 버지니아주 보훈·병무부 부장관에 임명된 박재선 씨, 동생 세라 박 씨, 어머니 박영애 씨, 아버지 박영태 예비역 대령. 연합뉴스

함께 미국 전역의 기업체, 대학 등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영킨 주지사는 “박 부장관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게 됐

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해 이번에 부장관으로 발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부장관은 “현역 군인과 재향 군인, 참전용사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주정부가 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장관은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하고 있는 박영태 예비역 대령과 성악가 박영애 씨의 장남이다. 부친도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2008년 말레이시아 미 대사관에서 국방부관으로 근무했고, 한국에서도 주한 미군 2사단과 한미연합사 소속으로 7년을 복무했다.

이인아 기자 ljh@

인사

◆보건복지부 ◆전보 △요양보험운영과장 이선주 △국립춘천병원 기획운영과장 김학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김인천 △국립광양의동산관리원장 신인식

◆환경부 ◆과장급 전보 △자연보전국 환경영향평가과장 정환진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전보 △인사지원부장 신두식 △국제협력실장 서정석

◆HQ ◆전보 △솔루션부문 콘텐츠사업본부장 권오준 △모바일부문 모바일사

업본부장 유재권 △방송부문 편성기획본부장 김학열 △ 제작본부장 정진용 △ 기술영상본부장 김성훈 △경영전략본부 홍보실장 허환 ◆선임 △솔루션부문 매체사업본부장 이백호 △경영전략본부 전략기획실장 박영찬

◆아주경제 △디지털미디어부장 김효정

◆뉴데일리 ◆보임 △금융부장 권대희 △산업부장 이대준 △크리에이티브 뉴스랩부장 김동욱 ◆승진 △부장대우 임정환 △부장대우 박지영

부음

▲이재혁 씨 별세, 한호순 씨 남편상, 이철형(서울신문사 사업국 부국장)·지형(제이비테크 공장장) 씨 부친상, 최진경·김영경 씨 시부상 = 18일, 상계 백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일 오후 1시, 02-950-1493

▲김범준 씨 별세, 김현규(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트레이닝 코치) 씨 부친상 = 18일, 삼육서울병원추모관 3호, 발인 20일 오전 10시 30분, 02-2215-4444

▲박희수 씨 별세, 박은용(BNK투자증권 파생금융본부장 상무) 씨 부친상 = 19일, 옥천성모병원 장례식장 401호,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43-733-0808

▲정일원 씨 별세, 정용진(이오테크닉스 구매팀 부장)·인량·예슬 씨 부친상, 정태영·구본관(한화투자증권 영업지원팀 팀장) 씨 장인상 = 19일,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 7호실, 발인 21일, 043-210-5444

▲오상용 씨 별세, 오화원(프로배구 현대캐피탈 시니어 매니저) 씨 부친상 = 19일, 일산 백병원장례식장 특 7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 30분, 031-910-4444

휴플러스, 이태신 모바일부문장

휴플러스는 다음 달 3일자로 이태신 전무를 모바일사업부문장으로 영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무는 1989년 삼성물산을 거쳐 프리젠틸, 싸이월드 온라인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 인터파크 부사장직을 맡아 모바일 커머스 사업을 이끌었다. 이 전무는 모바일 플랫폼 안정화와 차별화한 서비스 개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휴플러스 모바일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어도비코리아, 사이먼 데일 사장

어도비코리아는 신임 사장으로 사이먼 데일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데일 사장은 2019년부터 어도비 동남아시아를 이끌고 있으며, 이번 사장 임명으로 한국으로 관할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데일 사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력 20년을 포함해 30년 넘는 정보기술(IT) 산업 경력이 있다고 어도비코리아는 설명했다. 그는 영국 스테퍼드셔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으며 영국 미들섹스 대학교에서 영업 관리·혁신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연합뉴스

자본시장 속으로



박 동 흠 회계사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에 제2의 전성기가 다시 찾아왔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원재료 가격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원재료 수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찾아오게 되면 회사의 실적과 주가는 모두 급등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의 제동으로 인해 결국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은 무산돼 버렸다. 오랫동안 진행됐던 초대형 조선지주사의 탄생이 불발돼 아쉬움이 크다. 그렇다고 우리 조선업 자체가 나빠진 것은 아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수주량 증가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조선업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1월 3일에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공시를 통해 2022년 목표수주액을 113억 달러(원화 약 13조 원)로 제시했다. 회사는 2021년초에 목표수주액 89억 달러를 제시했었다. 즉 올해는 작년보다 목표를 27% 늘려서 잡았다. 더 고무적인 것은 2021년에 목표 대비 66% 초과한 147억 달러(원화 약 17조 원)의 일감을 수주했다는 점이다.

중소형 선박을 주로 제작하는 현대미포조선도 같은 날 공시를 통해 2022년 목표수주액을 36억 달러(원화 약 4조3000억 원)로 제시했는데 역시 전년 대비 3% 늘어난 것이다. 이 회사는 작년 목표 수주액이 35억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이를 36%

나 초과한 48억 달러(원화 약 5조7000억 원)를 달성했다.

조선업이 활황이던 2007년 수주액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살펴보면 당시에 현대중공업은 조선사업 관련해서 약 15조 원, 현대미포조선은 6조4000억 원이었으니 오랜만에 다시 호황이 찾아온 것이다.

영국 조선·해운 상황 전문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선박 교체 본격화 등 수요 증가로 인해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발주량은 2020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2021년 3분기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020년도 같은 분기 대비 184%나 증가하며 글로벌 조선업계가 완전히 회복됐음을 보여줬다.

선주들의 선적 주문이 늘면서 조선강국인 우리나라의 조선사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가지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 바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다.

현대중공업의 3분기보고서를 분석해보면 매출액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만 60%가 넘는다. 즉 선주에게 1000억 원 을 받고 배를 인도하면 여기에 600억 원 이상의 원재료가 포함됐다는 의미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도 크지만 매출액 대비 10% 수준이라 금액적 중요성은 원재료보다 낮다. 결국 조선업은 원재료 가격 등락에 따라 손익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의 3분기보고서에서 주요 원재료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2020년에 톤당 66만7000원이었던 강판은 2021년 3분기까지 94%나 올라서 129만2000원이 됐고 형강과 페인트도 몇 달 새에 각각 60%, 21%나 올랐다. 이로 인해 모든 상장 조선사들이 3분기까지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다.

조선업은 공사를 수주하는 때에 이미 미래에 발생할 매출액과 이익규모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조선소가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제작 주문을 받았는데 계약금액이 총 1000억 원이고 이 선박을 제조하는 데에는 3년의 시간이 걸리며 800억 원의 원가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가정해 보자. 조선소는 1000억 원을 수주하는 시점에 매출로 잡지 않고 공사를 하는 3년의 기간 동

안 나누어 인식한다. 이를 가리켜 진행 기준 수익인식이라고 한다.

조선소는 800억 원을 투입해서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200억 원의 이익을 남길 예정인데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 이익 예상치가 줄어들게 된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 선박 가격도 인상하면 좋겠지만 이미 과거에 조선사와 선주 간 계약서를 다 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손익에 엄청난 부담을 주지만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애기도 된다. 앞으로 발생할 매출액은 정해져 있고 가장 비중이 큰 비용이 줄어들기 시작하니 당연히 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에 제2의 전성기가 다시 찾아왔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원재료 가격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원재료 수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찾아오게 되면 회사의 실적과 주가는 모두 급등할 것이다. 그런 그림이 끝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CEO 칼럼



최소현 퍼셉션 대표

좋은 고객경험은 어떻게 만드는가

지난해 기업 경영의 주요 어젠더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였다면 2022년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고객경험 혁신'이다. 두 가지 모두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시대의 변화로 이제서야 주인공이 되었다.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 세계 임직원들에게 '가치 있는 고객 경험'에 집중하자는 메시지를 전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고객경험'의 효과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개편하면서 주요 부문명을 '()X'라 명명했다. 'X'는 다른 기업에서도 유행처럼 신선했고 있는 'CX'(Consumer eXperience, 고객 경험) 부문의 'X'와 같은 의미이다.

고객 앞에 펼쳐진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은 점점 더 상황평준화되고 고객들은 제품만이 아니라 첫 인지도부터 기업이나 브랜드가 자신에게 어떤 감동과 가치 있는 경험을 주는지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다. 좋은 상품은 기본이고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누가 더 잘 만드는가가 기업 경쟁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경험이 일관되고 꾸준히 매력적으로 '진심'까지 더해 전달되어야 하니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알게 모르게 노출되어 있는 모든 접점 중 어느 '일순간의 경험'에 의해 고객이 등 돌릴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 숙제를 피할 수 없다.

고객들의 지향기치나 취향이 점점 더 다양해져 누구를 위한 어떤 경험을 만들지 예측하고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테마파크가 아닌, 기업에 바라는 '좋은 고객경험'이 무조건 새롭고 강렬한 것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 한 번의 강한 임팩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까'라고 느끼게 하는 섬세함, 그것이 한 번의 반짝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면 비로소 고객과 긍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진다. 제품이나 서비스 경험 여정에서 여전히 아쉬운 불편요소나

결핍의 해소가 새로운 경험보다 더 적합할 때도 있다. '-경험을 0으로, 0을 +로 만드는 일' 중에서 각자가 해결해야 하는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고객 경험에서 '고객'이 누구인지 구체화하고 재정의할 필요도 있겠다.

인간의 경험은 개별적이라기보다 관련된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업들은 고객의 경험 여정 전체를 살펴면서 섬세하게 관찰하고 본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험할 때의 감각은 다감각(Multi Sensory)으로 작동하며, 경험의 영역 또한 감각/감성/인지/관계 등 여러 가지이므로 단편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관계자들이 함께 다면적 관점으로 고객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멋진 기획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실험 데이터를 보고 다시 경험을 진화시켜야 한다.

경험의 기대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경험의 세계 또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

현실(MR) 등으로 확장되고 있어 경험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지만 그만큼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경험을 만드는 이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지지 않는 것들의 다채로운 조합으로 어디까지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작고 큰 기업들과 기관 모두가 '고객경험 혁신'을 선언하며 잘된 사례와 자문받을 전문가를 찾기에 바쁘다. 오늘 고민의 주제인 '경험'은, 모든 경험을 직접 해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각자의 당면 상황에서 대안에 대한 가설을 기반으로 그와 관련된 경험을 일부라도 해 본 이들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야 한다. 경험해 보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것을 전해 들은 것만으로 진짜 경험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좋은 고객경험을 만들고 싶다면 구성원들이 먼저 그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본기가 될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지 번즈 명언 "당신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만큼 늙는 것이다." 미국 코미디언. 그의 아내 그레이시 앨런과 함께 출연한 라디오 쇼 '번즈 앤 앨런 쇼'의 큰 성공으로 TV 쇼까지 영역을 넓혀 활동했던 배우이다. 영화 '선사인 보이'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오늘은 그의 생일. 1896~1996.

☆ 고사성어 / 불혹(不惑) 나이 40세를 이르는 말. 세상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됨을 뜻한다.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 나온다. 공자(孔子)가 일생을 회고하며 한 말. "나는 15세가 되어 학문에 뜻을 두었고[吾十有五而志于學], 30세에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다[三十而立]. 40세가 되어서는 미혹하지 않았고[四十而不惑] 50세에는 하늘의 명을 알았다[五十而知天命]. 60세에는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고[六十而耳順] 70세에 이르러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 시사상식 / 700유로 세대(700 Euro Generation) 월 700유로(약 130만 원)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임시직에 종사하는 유럽 청년세대를 지칭한다. 이 용어는 유럽의 높은 실업률을 배경으로 나왔다. 용어가 유행한 2008년 기준으로 보면 유럽연합(EU)의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15.9%에 달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의 경우 20~30%까지 치솟았다. 청년세대의 고용불안을 나타내는 단어로 우리나라에는 88만 원 세대(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007년 전후 우리나라 20대를 일컫는 말로, 88만 원은 20대의 평균 월급을 의미), 서유럽에는 이케아 세대 등이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휴지 수지(手紙)에서 왔다. '수'는 옛 발음이 '슈'였으므로 원래 '슈지'였다가 치찰음이 없어지며 휴지로 바뀌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유창욱 / 산업부

시작은 무모해 보일지라도

"베트남 기업이 만든 전기차를 미국에서 공개한다고?"

호기심이 생겼을 뿐, 큰 기대는 없었다. 베트남 자동차 제조사 빈패스트가 'CES 2022'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떠오른 솔직한 생각이었다.

빈패스트의 발표 현장을 지켜보며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레티투투이 CEO가 무대에 올라 전기차 5종을 공개하자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쏟아졌다.

"2022년 말까지 100% 전기차 회사가 될 것이다. 완전한 전동화를 이룬 세계 최초의 자동차 회사가 되겠다"는 말에는 자신감이 느껴졌다.

세련된 외관의 차량을 직접 살펴보고 배터리 대역 방식의 사업 구조,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을 듣고 있자니 이 회사를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멎었다.

현장에서 발표를 지켜보는 베트남인들의 표정은 상기돼 있었다. 한국 기자임을 밝히고 소감을 묻자 한 관람객은 대각선에 자리 잡은 현대차 부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현대차가 그랬듯 빈패스트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1974년 현대차는 독자 생산한 첫 모델 '포니'를 토리노 모터쇼에 선보였다. 당시 언론은 포니에 관심을 표하면서도 현대차의 성장 가능성은 확신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47년 뒤 현대차는 판매량(1~3분기) 기준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했다. 끝없는 연구개발과 품질 향상, 글로벌 생산 체계를 갖춘 결과다.

전동화 시대에서는 내연기관 제조사가 가진 기존의 성장 공식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단기간에 성장한 테슬라와 리비

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빈패스트도 고전하던 내연기관 사업을 접고 과감히 전기차 제조사 전환을 택했다.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후발 업체임에도 미국과 유럽 시장을 첫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기업의 끊임 없는 도전과 모험이 쌓이면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빈패스트뿐 아니라 수많은 신생 기업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들의 도전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 과연 누가 혁신과 성장을 거머쥘지, 모빌리티 업계의 지각변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woogi@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e.g., 본사, 자본시장1부), Editor (e.g., 김상우, 김상철), and Contact Info (e.g., 주소, 대표전화). Includes a footer with date and ISSN information.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세 가지 시나리오

달리 앞세운 美 패권 유지? 경제규모 키운 中의 추월?

치킨게임 피할 '경쟁적 협력자 관계' 될 듯

미국 외교가의 전설이자 미·중 간 외교 관계의 산증인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중 간 펼쳐지고 있는 신냉전이 단순히 양국을 넘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양국의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과거 미·소 냉전의 시대와 전혀 다른 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간 충돌은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며 2022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중 간 충돌로 만들어진 먹구름의 무게중심이 주변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다차원적 신냉전, 세력전이 가능할까

미·중 신냉전 이해의 핵심은 양국 간 성장 속도의 차이 때문에 도전국(중국)의 국력이 패권국(미국)의 국력보다 강해지는 '세력전이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서 출발한다. 세력전이 이론은 미국 국제정치학자인 케네스 오르간스키 교수가 1958년 처음 언급한 힘의 변동이론으로, 국제관계는 패권국이 이익이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지만, 만약 도전국의 힘이 패권국에 근접하거나 균등해지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에 얼마나 근접했느냐에 따라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미·중 양국의 힘의 관계를 어떤 형식과 방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미·중 신냉전을 예측 분석할 수 있다.

과거 미·소 양국이 핵무기를 둘러싼 군비 경쟁이라는 측면에서의 일차원적인 냉전이었다면, 미·중 간 충돌과 격돌은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민주가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이는 다차원적인 신냉전이다. 따라서 과거 미·소 냉전과는 전혀 다른 매우 다층적인 구조 속에서 진행되고 확산되며 주변국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중 간 신냉전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가? 국내외 전문가들마다 미·중 신냉전의 서로 다른 세 가지 시각이 있다.

시나리오1, 미국은 그래도 세대!

첫 번째는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글로벌 패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과거 구소련과 일본처럼 미국은 중국 견제에 성공하며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패권으로 인해 결코 패권국의 지위를 중국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회고해 보면 1940년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대립과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미·소 냉전도 그러했다. 소련이 1953년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하며 1980년대까지 거의 30년간 소련이 미국

을 제치고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그러나 45년 동안 소련과의 경쟁에서 결국 미국이 승리하며 글로벌 패권을 가지게 된다. 소련과의 패권경쟁이 끝날 무렵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도전에도 직면한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소련을 넘어 세계 2위에 올랐고,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에즈라 보겔 교수가 쓴 '일등국가 일본(Japan as Number one)'이라는 책 제목처럼 미국이 몰락하고 일본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결국 달러패권 앞에 일본도 무릎을 꿇었다. 미국은 당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만회하고, 일본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엔화 평가절상을 요구한 이른바 '플라자 합'을 체결했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본 수출기업의 몰락과 버블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도쿄 부동산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

70%를 넘어서면서 향후 7-8년 안에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영국, 일본 등의 여러 연구기관들은 중국이 추월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IMF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8.86조 달러 규모인 중국의 GDP는 미국(22.94조 달러)의 73.5%로 점차 미국 경제를 따라잡아 가는 형국이다.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 영역에서의 중국의 성장은 더욱 가파르다. 반도체를 제외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에서 세계 특허 및 논문인용지수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시나리오3, 제로섬게임은 없다

세 번째는 미·중 관계를 제로섬게임 혹은 치킨게임이 아니라 경쟁-충돌-협력의 동시 진행되는 경쟁적 협력자 관계로 보는 시각이다. 향후 오랜 기간 미·중 간 신냉전은 지속되며 글로벌 정치 및 경제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전쟁에 비유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미·중 간 신냉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새로운 강대국(아테네)이 부상할 때 기존 강대국(스파르타)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미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개념이다. 하지만 지금의 국제사회는 고도로 연결되어 있고 이해당사자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 모두에 불리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가 미·중 양국을 넘어 총중심 연결되어 있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이 승리하는 제로섬게임이 결코 쉽지 않다. 또한 무력충돌과 같은 치킨게임이 벌어질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을 미·중 양국 모두 잘 알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지만, 중국의 군사력도 미국에 대응할 정도의 몸집을 키워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 정도였던 일본의 성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국제결제은행(BIS)이 자기자본비율을 8%대로 올리자 어쩔 수 없이 일본 은행들은 금리를 2배 이상 올렸고, 결국 일본의 자산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기업이 잇따라 파산하고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났다. 미국의 경제패권을 넘보던 일본의 참혹한 패배였고 그로 인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

시나리오2, 중국의 추월은 시작됐다!

두 번째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새로운 패권자로 등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는 중국의 정치력과 경제력, 4차산업혁명 기술 굴기에 기반한다. 중국은 1당 독재의 정책 지속성이 가능하고, 경제력 규모로 곧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미국 대통령을 '어쩌다 공무원'이란 뜻의 '어공'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늘 공무원'이란 뜻의 '늘공'에 비유한다. 공산당의 일관된 정책 지속성이 중국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 규모가 향후 10년 안에 미국을 추월해 경제패권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미국 GDP의



지난해 3월 18~19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1박 2일 동안 고위급 담판을 벌인 미국과 중국,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난 미·중은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오른쪽 사진 왼쪽)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측에서 양제츠(왼쪽 사진 오른쪽)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위원과 왕이 외교 당국 국무원 겸 외교부장이 대화에 나섰지만 갈등만 재확인하면서 향후 험난한 양국 관계를 예고했다.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간 대결 구도는 이제 국제관계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주변국들에 긴장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앵커리지/AP연합뉴스

시설

국제유가 급등, 위기요인 중첩되는 경제

국제 유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17일 예멘 반군이 무인기(드론)로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을 공격했다. 이에 따라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 원유(WTI)가 배럴당 85.43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9%(1.61달러) 급등했다. 한국의 수입비중이 높은 두바이유 가격도 이날 86.58달러로 2.0%(1.66달러) 올랐다.

미국의 세일오일 공급으로 유가 하락이 본격화한 2014년 10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들 유가는 올 들어서만 10% 이상 치솟았다. 유가 오름세는 앞으로 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 것도 러시아 원유생산 차질과 공급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선진국의 원유 재고 감소, 산유국들의 증산 지연 등도 겹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올해 안에 100달러를 돌파하고 2023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의 경우 올해 125달러, 내년 150달러까지 넘길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수요 전망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중대한 불안 요인이다. 에너지 가격과 수입물가를 올려 생산비용이 늘어난다. 기

업경쟁력 약화로 생산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연쇄적으로 소비자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서민 생활이 갈수록 빠듯해지면서 내수 경기가 뒷걸음치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연평균 100달러로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1%포인트(p) 높이고, 연간 경제성장률을 0.3%p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뿐 아니라 다른 주요 원자재 가격도 계속 고공행진이다. 미국의 통화 긴축, 중국 경기 둔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위기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한국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 원화의 약세까지 겹쳐져 불안이 증폭된다.

경기의 발목을 잡는 악재들만 부각되는데 경제정책은 꼬이고 방향성도 엇갈리면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방어와 유동성 축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기조인 반면, 정부는 끊임없이 돈을 풀면서 거꾸로 간다.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 구제를 내세운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안정적이어야 할 경제운용이 뒷전에 밀리고, 정책당국은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당이 내치른 선심성 퍼주기 공약의 뒤치다꺼리에만 바쁜 모습이다. 과거 한국전쟁 때인 1951년에 있었던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71년 만에 밀어붙이는 비정상적 행태가 대표적이다.

그 역에 가고 싶다 역사(驛舍)가 역사(歷史)가 된 경주역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 1918년 11월 1일 협계선 영업을 시작한 경주의 대표 관문 경주역은 2021년 12월 28일 신경주역에 그 임무를 넘기고, 103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폐역이 되었다.

처음 경주역은 1921년 목조의 한국 전통 양식으로 지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경주역은 이전 역사와 규모나 건축 방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현관 지붕은 처마 양단부를 살짝 올린 곡선형 평지붕으로 마치 석탑의 옥개석



처럼 보이며, 본관 지붕은 우진각에 정면의 현관 상부 지붕을 한단 더 높여 솟을지붕과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1936년에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기존 사정리에서 서정리로 경주역을 옮기면서 현대식 경주역사를 새로 신축했기 때문이다. 단층 소규모 건물이 주류였던 그 시절, 거대한 경주역사는 식민지배의 상징적 건물이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건설한 동해선 선로는 사천왕사, 동궁과 월지 등의 중요문화재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유네스코의 권고로 동해선을 외곽으로 이설하여 현재의 신경주역으로 이관하였다. 현재의 역사는 2013년 철도기념물로 지정되어 비록 철도역사로서의 역할은 끝이 났지만, 지난 100여 년의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로 남게 되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경주는 갈 곳, 볼 것이 참 많다. 신라 왕들이 잠들고 있는 대릉원, 그들이 노닐던 안압지, 어느 기슭 어느 언덕 한 자락도 놓칠 수 없는 경주 남산, 좀 더 발품을 팔면 닿을 수 있는 불국사, 석굴암, 감천사지, 문무왕릉, 양동마을, 그리고 요즘 분위기로 따지면 또 황리단길. 지금은 폐역이 되었지만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그 시작은 경주역이었다. 자료 국가철도공단 '한국의 철도역'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The new Kia K9

Masters that inspire

떨어져 지낸 시간만큼 더 깊어진 자신만의 향기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그 날을 기다립니다.

[조향사 정미순]



Movement that inspires

구입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K9 V6 램다 II 개선 3.8 GDI 2WD 18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9.0km/l (도심연비 : 7.8km/l, 고속도로연비 : 11.0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30kg | 복합CO₂배출량 192g/km - 5등급 - K9 V6 램다 II 개선 3.8 GDI 2WD 18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8km/l (도심연비 : 7.6km/l, 고속도로연비 : 10.8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30kg | 복합CO₂배출량 194g/km - 5등급 - K9 V6 램다 II 개선 3.8 GDI 2WD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8km/l (도심연비 : 7.6km/l, 고속도로연비 : 10.7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40kg | 복합CO₂배출량 196g/km - 5등급 - K9 V6 램다 II 개선 3.8 GDI 2WD 19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자동 8단 : 복합연비 8.6km/l (도심연비 : 7.5km/l, 고속도로연비 : 10.5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40kg | 복합CO₂배출량 198g/km - 5등급 - K9 V6 램다 II 개선 3.8 GDI AWD 18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4km/l (도심연비 : 7.3km/l, 고속도로연비 : 10.3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2,000kg | 복합CO₂배출량 204g/km - 5등급 - K9 V6 램다 II 개선 3.8 GDI AWD 18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자동 8단 : 복합연비 8.2km/l (도심연비 : 7.0km/l, 고속도로연비 : 10.3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2,000kg | 복합CO₂배출량 210g/km - 5등급 - K9 V6 램다 II 개선 3.8 GDI AWD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3km/l (도심연비 : 7.3km/l, 고속도로연비 : 10.1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2,010kg | 복합CO₂배출량 207g/km - 5등급 - K9 V6 램다 II 개선 3.8 GDI AWD 19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자동 8단 : 복합연비 8.2km/l (도심연비 : 7.2km/l, 고속도로연비 : 10.0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2,010kg | 복합CO₂배출량 209g/km - 5등급 - K9 V6 램다 II 개선 3.3 T-GDI 2WD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7km/l (도심연비 : 7.4km/l, 고속도로연비 : 10.9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2,005kg | 복합CO₂배출량 199g/km - 5등급 - K9 V6 램다 II 개선 3.3 T-GDI 2WD 19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자동 8단 : 복합연비 8.6km/l (도심연비 : 7.4km/l, 고속도로연비 : 10.6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2,005kg | 복합CO₂배출량 200g/km - 5등급 - K9 V6 램다 II 개선 3.3 T-GDI AWD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1km/l (도심연비 : 7.0km/l, 고속도로연비 : 10.1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2,075kg | 복합CO₂배출량 213g/km - 5등급 - K9 V6 램다 II 개선 3.3 T-GDI AWD 19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자동 8단 : 복합연비 8.0km/l (도심연비 : 6.8km/l, 고속도로연비 : 10.0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2,075kg | 복합CO₂배출량 216g/km - 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원 및 사양은 성능 향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